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공개구혼

《徵婚啓事》 - 韓國語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金 美 炅

2015年 7月

# 공개구혼

《徵婚啓事》 - 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宋 咳 宣

金 美 炅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 年 7 月

金美炅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成植



委 員

金美炅



委 員

宋咳宣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5 年 7 月

## 목 차

광고 내용	1
작가의 말	2
첫 번째 남자	3
두 번째 남자	6
세 번째 남자	8
네 번째 남자	10
다섯 번째 남자	12
여섯 번째 남자	16
일곱 번째 남자	16
여덟 번째 남자	19
아홉 번째 남자	20
열 번째 남자	22
열한 번째 남자	25
열두 번째 남자	28
열세 번째 남자	28
열네 번째 남자	30
열다섯 번째 남자	34
열여섯 번째 남자	36
열일곱 번째 남자	37
열여덟 번째 남자	38
열아홉 번째 남자	40
스무 번째 남자	43
스물한 번째 남자	45
스물두 번째 남자	47
스물세 번째 남자	49
스물네 번째 남자	51
스물다섯 번째 남자	53

스물여섯 번째 남자 .....	57
스물일곱 번째 남자 .....	58
스물여덟 번째 남자 .....	60
스물아홉 번째 남자 .....	62
서른 번째 남자 .....	62
서른한 번째 남자 .....	63
서른두 번째 남자 .....	64
서른세 번째 남자 .....	66
서른네 번째 남자 .....	68
서른다섯 번째 남자 .....	71
서른여섯 번째 남자 .....	72
서른일곱 번째 남자 .....	74
서른여덟 번째 남자 .....	75
서른아홉 번째 남자 .....	77
마흔 번째 남자 .....	79
마흔한 번째 남자 .....	81
마흔두 번째 남자 .....	81
후기 .....	87

나오는 이 / 천위혜이(陳玉慧)와 마흔두 명의 남자  
기록 / 천위혜이(陳玉慧)

광고.. 살아있음을 후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  
경제적 조건은 상관없음. 이혼에 거부감 無.  
먼저 친구가 된 후 결혼하길 원함. 결혼 정보 회사 아님.  
장난 사절!  
7X X-06X9

광고 낸 매체.. 《자립만보(自立晚報)》  
《연합보(聯合報)》  
《중국시보(中國時報)》

공개 구혼 기간.. 1989년 11월 ~ 1990년 1월

공개 구혼 장소.. 타이베이시(臺北市)

공개 구혼자.. 총 108명 (남자 107명, 여자 1명)

## 작가의 말

이 책은 한 여성과 마흔두 명 남성의 공개 구혼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1989년 겨울, 저는 우(吳) 양이라는 이름으로 연이어 신문사 세 곳에 공개 구혼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사마다 3일 동안 광고를 냈는데 모두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 (공개 구혼에 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가 계속 통화 중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잠시 외출했을 때는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 구혼에 응한 108명 중에 타인을 통해서 연락 온 사람 3명 이외에는 모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공개 구혼에 응한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고 편지를 주고받거나 혹은 전화를 했는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을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마흔두 명의 남성을 선택해서 기록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저에게 남긴 가장 강렬한 인상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 했으며 최대한 대다수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보존시켜서 윤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흔두 명의 공개 구혼자들의 성명, 나이, 만난 시간 및 장소는 실제와 다른 허구이니 사실과 대조해 보지 마시길 바라며 공개 구혼 과정에서 제가 보인 반응들은 있는 그대로 조금도 꾸밈없이 기록했습니다.

## 첫 번째 남자

『그는 머리를 가지런하게 빗어 넘기고 기름을 발랐다. 희고 큰 얼굴, 눈가에 주름이 진 것 이외에 세월의 풍파를 겪은 흔적이 그다지 보이지는 않았다. 눈은 작지만 생기가 넘쳤는데 이는 그의 얼굴 전체를 흥미 있게 보이게 했다.』

첫 번째 남자는 처음으로 공개 구혼에 응해 준 사람으로 내과 의사였다. 올해 원이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그는 내게 질문 몇 가지를 하고는 일요일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평소에 병원이 바빠서 일요일에만 시간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푸이(碧富邑) 2층의 커피숍이 괜찮겠다며 약속 시간이 되면 자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테이블에 신문을 놓고 입구와 가까운 곳에 앉겠다고 말했다.

내과 의사는 제시간에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그가 말한 대로 입구 쪽에 앉지는 않았지만 테이블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다. 그는 555 담배를 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주 고급스런 암홍색 날염 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맨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선 몸을 일으켜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그는 ‘방금 긴 머리 여성의 뒷모습을 봤는데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전화 상으로 내 겉모습에 대한 언지를 준 적은 없었다.

나는 자리에 앉고선 토마토 주스를 주문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민망해졌다. 어쨌든 이것이 내 생애 첫 공개 구혼이었으니깐……. 그는 나에게 담배를 권했다. 나는 그의 커피 잔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도착한 지 오래됐는지 물었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옆 테이블에 두 쌍의 부부와 아이가 와서 앉았고 나는 누군가가 대화 중에 「첫눈에 반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희고 큰 얼굴에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넘기고 기름을 발랐으며 눈가에 주름이 진 것 이외에 세월의 풍파를 겪은 흔적이 그다지 보이지는 않았다. 눈은 작았지만 생기가 넘쳐 얼굴 전체를 흥미 있게 보이게 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나는 좀 불편했다. 나는 사



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는 통에 공개 구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잠시 후 이런 설명이 그저 나의 우월감이 작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그는 나에게 공개 구혼을 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연락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는 연락도 많지 않았고 연락 온 상대들 모두 이상형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나의 광고가 별로라며 사용한 문구도 맞지 않고 공개 구혼 광고에 남자의 나 이도 명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나는 공개 구혼 광고 글을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이왕 공개 구혼에 왔으니 밀어붙이기로 하고선 어색하게 물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당신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나요?」 그는 자신도 이 부분이 신경 쓰였지만 꼭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가 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생각을 깊이 헤아리려 했고 곧바로 웃으면서 나의 청춘이 내가 다시 늙어지는 것을 용납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도 웃었다. 하지만 다시 농담이 오가진 않았는데 아마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만약 당신과 내가 교제한다면 아들이 반대할까요?’ 그는 아들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평소에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스스로 돈을 벌고 생활할 정도로 아주 독립적이라면서 부자간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으며 그는 계속해서 독신으로 살았다고 했다. 평소 어떻게 생활하냐고 물으니 매일 병원에서 밤 8시 넘게까지 일하고 일요일엔 등산하거나 교외로 나들이를 가거나 사진기를 가지고 놀거나 카드놀이를 한다고 했다. 그에게 다시 다른 결혼 상대를 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 아니겠냐고 하면서 어떨 땐 친구가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어떨 땐 본인이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면서 그 이외에는 모두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했다.

「사기 결혼도 겪어 봤다.» 그가 ‘사기’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깜짝 놀라 뭘 사기 당했냐고 물어보니 그는 자기 나이가 되면 사랑에 속는 건 불가능하고 돈

썸이야 조금 사기 당하는 것은 상관없다며 「그냥 모른 척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결혼을 원하는 한 여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겨우 첫 만남에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헤어질 때 여선생은 그에게 차비 2천 위안을 요구하면서 이미 만났으니 당연히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물다섯 살의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공개 구혼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다. 두 달 후에 그녀는 외할머니의 병 치료 명목으로 그에게 3만 위안을 빌렸다. 그는 얼마 동안 교제했으니 그 정도 돈을 준 것은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또 유흥업소에서 한 여성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에게 후에 사랑의 보금자리로 쓸 집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선 10여 만 위안을 「뽕아 먹었다.» 그가 뒷조사를 해보니 집을 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화는 여기까지였다. 나에겐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 하나는 나 역시도 단지 돈으로 사기 치는 게 아닐 뿐이지 마치 사기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도 그의 돈을 사기 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생각은 떠오르는 순간 바로 사라졌다.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너무 터무니없어…….

나는 일이 있어 가 봐야 한다고 말하고는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듯이 그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배웅해 주겠다고 했다. 비푸이(碧富邑)에서 나와 신이루(信義路)에 이르렀을 때 그는 나를 굳이 부축해 주려고 했다. 또 한 번은 차안 라디오에서 낮설고 무미건조한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그는 손을 뻗어 재빠르게 나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앞모습, 옆모습 다 아름답군요.» 라고 말하고는 둔화남로(敦化南路)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차에서 내리며 나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했다. 내과 의사인 그는 차 안에서 몸을 내밀며 「만약에 당신이 나를 찾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걸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잃다.» 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와 헤어지는 순간에 나는 그와 결혼할 수 없음을 확신했다. 며칠 뒤에 그가 전화를 걸어 자동 응답기에 매너 있게 나의 근황을 물었지만 나는 회신을 하지 않았다.

## 두 번째 남자

『그가 입고 온 옷은 전화 상으로 말한 색상과 달랐다. 평범한 외모에 얼굴엔 울분의 흔적이 있었지만 어쩌면 내가 영원히 추측할 수도 없는 불행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자동 응답기에 전화번호를 여러 개 남겼다. 나는 하나하나 모두 걸어 봤는데 마지막에야 그와 연결이 되었다. 그는 신문에서 「나」를 봤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했다. 그는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만 친한 친구는 많지 않다고 했다. 평소에 비즈니스 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사업 규모도 작지 않아서 타이베이(臺北) 근교 곳곳의 여러 기업과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만나자고 해서 내가 둔화난루(敦化南路)의 슈상위엔(書香院)에서 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그는 그곳은 주차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당신이 편한 대로 하라며 「어쨌든 저는 차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재결소(交通裁決所)에서 만나는 것이 어떠냐고 했지만 나는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는 어떻게 교통재결소(交通裁決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며 놀라워했다. 나는 줄곧 매너 있게 그와의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가 약간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마침내 우리는 한 편의점 앞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무슨 색의 캐주얼을 입을지 말해주고는 내게 무슨 옷을 입을 건지 물었다. 나는 영겹결에 검은색 상의에 빨간색 치마라고 답하고선 꼭 그렇게 정한 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처음 만나는 거니 꼭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 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쉽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했다.

그날 오후 4시가 채 되지 않았지만 나는 푸싱난루(復興南路)와 허핑동루(和平東路)의 교차로에 서서 맞은편을 바라보았다. 약속한 장소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 (막상 때가 되자 겁이 난 것이었다.) 급히 안경집에 안경을 보러 들어갔다.

나는 선글라스를 여러 개 써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안경집 라디오에서 4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곳을 빠져나왔다. 노점상에서 신발 한 켤레를 샀는데 나중에야 노점상 주인이 나에게 오른쪽 신발 두 개를 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편의점 문 앞에서 있었는데 그곳엔 조그마한 체구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주위에는 그 사람밖에 없었고 그 남자는 전화 통화 때 말했던 색상과 같은 캐주얼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누굴 기다리는 거냐고 물었고 그는 재빨리 아니라고 답했는데 얼굴엔 두려움이 드러났다. 그의 반응은 나를 긴장하게 했다.

4시 10분, 세단 한 대가 푸싱난루(復興南路)에 나타났고 차는 천천히 허핑동루(和平東路)로 방향을 틀었다.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남자 한 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나에게로 다가왔다.

키가 작고 배가 나온 중년 남성이었다. 그가 입고 온 옷은 전화 상으로 말한 색상과 달랐다. 평범한 외모에 얼굴엔 울분의 흔적이 있었지만 어쩌면 내가 영원히 추측할 수도 없는 불행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 같다. 그에게 ‘혹시…….’라고 물어보려는 찰나에 그는 재빨리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고선 또다시 나에게 물었다. ‘정말로 교통재결소(交通裁決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곳은 주정차가 안돼요. 우리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봅시다.’ 그가 제안했다. 그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차에 타 버렸다. 나도 약간 주저하다가 그의 차에 올라탔다. 그의 차 안엔 어떠한 물건도 놓여 있지 않았으며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 출발하자 나는 누군가가 차에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검정색 졸티에 검은색 비니를 쓴 남자가 뒷좌석에서 나를 꼭 껴안는 듯…….

물론 이것은 단지 내 공포가 만들어 낸 환상이었다.

나는 동취(東區)로 가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런아이루(仁愛路)와 동평지에(東豐街) 부근을 빙빙 돌았지만 주차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그는 동취에서는 「공짜로 살라고 해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일본 음식점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는 나에게 「저는 제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라고 말하고선 또 나에게 자신이 왜 손목시계를 오른쪽에 차는지 아냐고 물으면서 「다른 사람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손을 만져 보게 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가 계속 권하자 억지로 만지

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다. 그는 자기와 같은 손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고 하면서 「어린 나이에 성공하고 가정형편이 괜찮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직접 양담배, 양주를 수입하고 있어서 나중에 양주 한 병을 보내 주겠다고 했다. 그에게 해외 출장을 자주 가냐고 물으니 그는 지금까지 외국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영어는 입을 줄은 안다고 하면서 자신이 수입한 양담배 한 갑을 꺼내들더니 ‘Japan Tobacco……’라고 정말 아주 큰소리로 읽었다. 나는 갑자기 종업원들이 내가 술집 아가씨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돼서 바로 주변을 돌아보며 두리번거렸다.

그는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와 같은 사람은 절대 공개 구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면 그는 남자고 남자면 남자다운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광고를 내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실수는 세 번이면 족하다며 만약 자신이 나에게 전화를 세 번 걸어서 나와 다음번 약속을 잡지 못한다면 네 번째 전화를 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면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회사 직원에게 ‘여기 ○○슈퍼인데 담배 주문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다.

일본 음식점을 나오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나를 배웅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따 저녁에 새우잡이 낚시하러 가는 게 어떨겠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평소에 잘 걷지 않는 길을 택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딱 세 번의 전화를 걸어왔다.

## 세 번째 남자

『그는 빨리 결혼하고 싶으나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는 「소꿉놀이」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평소에 저녁 9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가는데 홍콩 드라마 비디오 보는 것을 좋아하며 담배를 피지만 술

은 마시지 않고 춤도 추지 않으며 도박을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나는 거의 매일 그가 자동 응답기에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늘 전화 받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연결되었는데 전화 받는 분이 내가 찾는 사람은 「이곳에 살 때도 있고 살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해 줬다. 또 어느 날 오후에 전화를 걸었더니 수화기 너머로 개 짖는 소리가 사납게 들려왔다. 또 한 번은 한 여성이 나에게 「그가 밤에는 집에 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알려 줬다.

나는 갑자기 그가 정말로 그곳에 사는 건지 또 전화 받는 이들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밤중에 전화를 걸었다. 원래 누군가 전화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에도 그가 잠에서 깨나서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민난(閩南) 사투리를 쓰는 젊은이의 목소리였다. 그는 삼중(三重)<sup>1)</sup>의 펀치프레스 공장 사장이라고 말했다. ‘맞았다. 결혼을 생각한다고 말한 그 사람이었다.’

내가 그에게 여자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소개팅을 한 적이 있다.’고 하고는 지인이 여자 한 명을 소개시켜 줬고 그녀와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빠리스 재즈바에 가서 노래도 들었지만 「그녀는 모두 맘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공 기관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집안에서 돈을 굉장히 중시하였으며 그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는 건달 같아’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는 빨리 결혼하고 싶으나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할 수 없고 게다가 인륜지대사는 「소꿉놀이」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평소에 저녁 9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가는데 홍콩 드라마 비디오 보는 것을 좋아하며 담배를 피지만 술은 마시지 않고 춤도 추지 않으며 도박을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평소에 《민중일보》를 즐겨 보는데 어느 날 임대 광고를 보다가 나의 공개 구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 관련 전화를 하는 김에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전화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전화

---

1) 삼중(三重): 타이완 신북시에 위치한 지역

비도 매월 3백 위안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게 나온다。」고 말했다.

편치프레스 사장의 학력은 중졸이었다. 그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며 비가 올 때는 자가용을 끌고 다녔다. 본가는 자이(嘉義)<sup>2)</sup>이며 토요일이면 고향 집에 내려갔다. 그는 자신은 남을 속일 줄 모른다고 하며 공장이 매우 작아서 두세 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선 나에게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떤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결혼이란 것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인륜지대사이기 때문에 당신과의 만남이 적합한지 생각해 본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전화를 끊었다.

## 네 번째 남자

*『그는 짙은 녹색 청년복에 회색 정장 바지를 차려입고 황토색 신발과 자주색 양말을 신었다. 안색은 아주 좋아 보였고 양미간에서 빛이 났다. 하지만 그의 인사치레와 너무 점잖은 모습으로 인해 나는 오히려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어쩌면 최적의 결혼 상대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정말이지 너무 신중했다. 그는 처음에는 저녁 7시 45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난 후에 다시 전화로 약속 시간을 8시로 바꿨다. 8시 10분, 내가 리팡(黎坊)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카운터에 서 있었었는데 자신이 약속 장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나에게 전화를 걸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짙은 녹색 청년복<sup>3)</sup>에 회색 정장 바지를 차려입고 황토색 신발과 자주색 양말을 신었다. 안색은 아주 좋아 보였고 양미간에서 빛이 났다. 하지만 그의 인사치레와 너무 점잖은 모습으로 인해 나는 오히려 잠시 말문이 막혔다.

2) 자이(嘉義): 타이완 중부의 도시

3) 청년복: 장정귀(蔣經國)가 개발하여 1970년~80년대 타이완 공무원이 주로 입었던 남방셔츠이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혼 경력이 있었고 전처와 아이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도 미국에서 2년 간 일을 했었으며 「외국 환경이 아주 괜찮다.」고 느꼈지만 타국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으며 어쨌든 타이완(臺灣)이 자신의 집이고 그는 자신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현재 그는 아버지와 함께 지낸다고 했는데 분명 효자임에 틀림없었다. 평소에는 집에서 CD를 듣거나 등산을 하거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는 한 번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보니 과거에 겪었던 본인의 충동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였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깊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

그가 너무 정중하고 예의바랐기 때문에 나는 너무 직접적인 문제로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가 놀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우리 둘의 대화는 줄곧 너무나 무미건조했고 그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른이 넘었고 체격은 보통이었으며 컴퓨터 회사 간부였다. 그의 인상은 독특했는데 그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우리 둘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심지어 결혼 생각이 있는 여자 친구를 그에게 소개해 줘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가 놀라 자빠질까봐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만난 다음날, 그가 전화를 걸어 와서는 나에게 집 전화번호를 알려 준다는 걸 깜빡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깊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다. 그는 그저 「다른 일은 없어요.」라고 말하고선 전화를 끊었다.

6일 후, 나는 그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다. 말(馬) 한 마리가 그려진 카드엔 그의 사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정말이지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 다섯 번째 남자

『내가 자리를 뜨려고 할 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식당에서 나오자 문 좌측에 남색 우비를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이 그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택시에 올라타 버렸다.』

그는 나와 동갑이었지만 아주 동안이었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때 그는 나에게 신장, 나이, 학력을 물었고 내가 대충 대답하니 그는 「와! 학력이 이렇게 높다니! 안되겠는데……, 안되겠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석사까지 공부한 사람은 분명히 너무 고상할 거 같다고 했다. 내가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라고 말하자 그는 졸업장을 찢어 버리라고 했다.

그는 또 사람은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신문에 공개 결혼을 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은 아니라며 자신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며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난처해질 거라고 말했다.

그럼 왜 나에게 전화를 걸었냐고 묻자 그의 친구가 최근에 모호한 말투로 그에게 「결혼은 참 좋은 거야!」라고 말해서 매일 결혼 상대를 찾는다고 했다. 그는 ‘씨앗을 뿌릴려면 땅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정말 찾기 어렵다.’고 말하고선 조금 있다가 다시 「사실 결혼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으면서 모든 사람의 견해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가 결혼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고 묻자 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바로 상대와 말이 잘 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저 중용사상을 유지한다면 남녀 사이에 대화가 잘 통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받아치면서 ‘하지만 제 생각이 중용을 유지 못하는 게 문제죠.’라고 말했다.

‘그럼 결혼을 생각하기엔 너무 어렵네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노래를 들으려고 라디오를 키자 라디오 디제이가 말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나를 사랑하나요?》입니다.’ 나는 바로 라디오를 꺼 버렸다. 「당신

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가요?」라며 그가 물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정말로 결혼하고 싶었다고 나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다고 말했다.

이런 말들이 그를 자극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서른이 지난 남자면요. 솔로라면 어떨 땐 혼자 맞이하는 밤이 쉽지만은 않죠.’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감상에 젖어들었다.

그는 열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예전에 우편물 검사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일은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조사국에 있었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차마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누가 전화를 도청할까봐…….) 그는 1년 동안 많은 우편물을 뜯어봤는데 이 일로 세상을 보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바로 자신이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는데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교도소 측에서 그를 우편물 검사하는 곳으로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유명인의 편지를 읽어 보았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은 것인데 부친이 그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했는데 어음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는 빚을 청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결정했다. 그의 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 해도 1년 내에 엄청난 금액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후에 그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약혼녀는 그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 한 달 후에 바로 파혼 신청을 했다. 교도소에서 보낸 답답한 나날 중 그가 매일 아침 깨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바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는 원래 나에게 이 일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유인즉슨 그가 몇 번 알고 지내던 여성들에게 이 일을 얘기하니 상대가 모두 두려워했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녀들 모두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태도가 점점 변했다. 이 때문에 그는 결혼 생각을 접었고 아직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69년 생 혹은 70년 생의 어린 여성하고만 교제를 했다.

그는 정말이지 열등감을 느꼈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막막해 했다. 출소 후, 그는 창룡(長榮), 타이스(臺視) 등의 회사에 합격했지만 매번 출근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회사에서 인적 사항 기록을 요구할 때 어쩔 수 없이 회

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한번은 회사에서 호적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그 사이에 끼워서 함께 제출했다.

이후에 그는 아버지 공장에 출퇴근하며 인사관리를 맡았다. 정말 원치 않았지만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차려서 만약에 그가 아버지 공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집에 오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실 게 분명한데 그는 어머니가 우시는 걸 원치 않았다. 지금 그는 형제자매들이 외국에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이 집에 바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때로 어머니께서 그가 친구가 없다는 것을 걱정하실까봐 사람들과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끔 휴일에 일부러 밖에 나갔다고 했다. 사실 그는 집에서 비디오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도 말이다.

나는 낭만적인 어조로 말했다. ‘교도소에 있는 것도 좋은 인생 경험 아닌가요? 당신은 마음이 참 착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바보스러운 효도를 비웃었다.

나는 내 얘기를 시작했다. 장녀이지만 열여덟에 집을 나왔는데 나는 줄곧 집은 집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했다. 약간의 반항적인 심리가 있었고 자아실현의 생활을 추구했다. 그와 비교해 본다면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는 오히려 여자니깐 괜찮다고 답했다.

우리는 탄화토우(談話頭) 식당에서 보기로 약속했다. 그는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식당 위층에 자리를 잡았다. 아래층은 출입이 편하지만 내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식당에 들어오는 반응을 관찰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즉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바로 아래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참 기다리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식당에서 나오자 문 좌측에 남색 우비를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이 그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택시에 올라타 버렸다.

집에 와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처음엔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했다가 다시 넘어졌다고 말을 바꾸고선 식당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차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왜 들어가지 못했냐고 물으니 남들과 다른 것

이 두려웠다면서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식사하는데 혼자 비에 흠뻑 젖은 채 들어가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에 소외감을 느낄까 두려웠다는 것이었다.

나는 프로이드의 지각이론을 인용하면서 말했다. ‘만약에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는다면 그건 잠재의식 속에 도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침내 열등감 때문에 나와 마주하기가 두려웠다고 인정했다. 몇 번의 대화가 오가자 그는 나를 하나의 빙산(冰山)과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었다. 사실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파악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다. 어렸을 적에 여동생과 내가 비오는 날 교회에 가는데 엄마는 우리에게 우의와 비옷 바지를 입혀 주었다. 하지만 당시 친구들은 대부분 다신(達新) 브랜드의 우의를 입었고 (다신 브랜드 비옷은 판초로써 비옷 바지는 없었다.) 나는 비옷 바지를 더 입은 이유로 교회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물장난 하다가 집회 시간이 끝나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약점이 있다.

우리가 만난 그날은 바람이 세게 불었고 나는 별뿔별을 목격했다. 그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손에는 오토바이 헬멧이 들려 있었고 입에는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있었다. 그는 매우 말랐고 키가 아주 컸는데 나에게 보내준 군대 시절 사진과 다를 게 없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매우 긴장해서 재빨리 담배를 끄고는 친구를 보러 온단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좋아요! 친구를 만나다는 기분…….’ 내가 말했다. 나를 잡고 있던 그의 손에는 굳은살이 많이 있었고 그는 담배도 많이 피웠다. 「우리는 평행으로 달리는 기차예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그는 결혼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전형적인 타이완 사람이며 가정환경의 차이가 아주 크고 현실 생활에서 가정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하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게 앞서가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가 좋아하는 여성은 그를 좋아하지 않고 그가 좋아하지 않는 여성은 그를 좋아한다며 서른이 넘으니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여자가 두렵다고 말했다.

## 여섯 번째 남자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에 나도 다시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삐삐를 사용하는 남성이었다.

그가 전화를 했을 때 나는 부재중이었다. 그가 삐삐 번호를 남겼기 때문에 나는 얼른 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그의 키는 168.9cm이며 현재 선배와 함께 선물(先物) 거래를 하고 있어 동서남북 종횡무진 다닌다고 했다. 내가 그에게 편지로 교체하길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학생 때 같은 마음가짐이 아니네요. 늙었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자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가 금요일에 만나자고 했는데 나는 날짜를 착각해서 목요일에 약속 장소에 갔다. 그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지금은 나갈 수 없다며 원래 약속한 시간에 만나면 안 되겠냐고 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옷을 입을 건지 물었고 나는 녹색 스웨터를 입을 거라고 했다. 그는 만약에 약속 장소에 두 명이 넘는 사람이 녹색 스웨터를 입고 있으면 그가 구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삐삐를 쳐도 된다고 했다.

금요일 오후, 리상위안(黎香園) 커피숍에서 녹색 스웨터를 입은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에 나도 다시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 일곱 번째 남자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신분증을 꺼내 나에게 보여줬는데 본인의 이름과 싱글이란 점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있는 걸 미안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신이루(信義路)의 호프집에서 보기로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신분증을 꺼내 나에게 보여 줬는데 본인의 이름과 싱글이란 점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있는 걸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푸른색의 명품 스웨터와 흰 셔츠를 입었다. 말할 때 제스처가 많았는데 상당히 여성적이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는 근 10년간 있었던 우여곡절을 숨김없이 다 말해 주었다.

그는 2년 반 전에 일본에서 타이완으로 왔다고 했다. 술을 좋아해서 얼굴이 검게 변했다고 하고선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예전에는 피부가 하얗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에 직업을 바꿔 볼까 하고 신문을 보다가 공개 구혼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최근에 누나가 그에게 세상을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녔으니 이제는 마음을 잡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도 약간은 공감했고 아내를 맞이해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일을 갖고 싶어 했다.

하물며 일이 년 사이에 그는 「같이 놀 사람이 없다.」, 「돈 들어가며 술 사고 친구 와이프한테 욕먹는다.」고 자주 느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일도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주 답답하지!」 그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위로했다. ‘남자는 술이라도 마실 수 있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라고…….

그는 사실 결혼한 적이 있었다. 전처는 도박을 좋아한데다 딴 놈이랑 도망도 쳤다.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사실 전처는 아주 예뻐다. 이혼 후에 그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 여행사와 파라과이로 가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외국에서 중국인에게 사기 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그는 여기저기 전전하다 파나마로 갔는데 수중에 5달러만 남게 되었고 그곳에서 1년 넘게 지내다가 귀국하여 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기업의 「관리자급」이었고 일본에 「고위직」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자신이 공부 중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그저 관광하고 시찰하러 왔다고 말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지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생활비와 술값은 벌 수 있었지만 기간이 길어지

자 다시 실의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일본 요리를 할 줄 아는데 「이 업종의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고 말하며 예전에 요리사를 했었는데 매일 10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만 2천 위안을 벌었다고 했다. 이 얘기까지 나오자 그는 또 가방에서 일본어로 된 편지를 꺼내서 나에게 보여 줬다. 그는 아직도 일본에 가서 일하고 싶다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력서를 일본의 여러 회사에 보낸다고 했다. 왜냐하면 현재 일하는 회사 사장이 「스무 살을 갓 넘긴 애송이」 아들에게 자리를 넘겨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에게 영업을 뛰라고 했고 그는 체면이 안 선다고 느낀 것이었다. 그는 젊은 사장보다 열 몇 살은 위인데 「내가 먹은 소금이 그 놈이 먹은 밥보다 많다.」고 생각되어 사직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다.

그는 또 잡지 하나를 만들고 싶어서 친구 세 명에게 각각 50만 위안을 투자하라고 해서 200만 위안을 모으면 일이 되겠거니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친구들이 20만 위안만 투자하고 싶어 하자 투자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 「아예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직장이 어딘지 물었고 나는 막 외국에서 돌아와 현재 일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애초에 그가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서 지내면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집의 돈 일 이백만 위안을 썼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자신을 찾으라면서 자신이 오빠가 되어 주겠다고 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그가 재빨리 계산서를 들고선 원래는 나와 함께 다른 곳을 가고 싶었다면서 내가 이렇게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내가 계산을 하려 하자 그가 즉시 막아내고선 내 앞으로 와서 식당 문을 열어 주었다. 그는 정말 키가 크지 않았다.

나는 맞은편 꽃집에 가야 한다고 했고 그는 집에 가기엔 너무 일러서 친구를 불러내야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흔들고선 건너편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가 굉장히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길가에 서서 그를 쳐다보았고 그는 전화 통화에서 얘기했던 「여학생들이 메는 것과 같은 백팩」을 메고 있었다. 그는 신이루(信義路)에서 푸싱난루(復興南路) 입구까지 걸어갔고 공중전화기 앞에서 멈춰서고는 전화를 걸었으며 내가 길가에서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 여덟 번째 남자

『나는 그에게 왜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는 내키지 않는다며 밖이 더 분위기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와 만나지 않은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전화 통화에서 그는 자신의 성이 방(方) 씨이며 저장(浙江) 사람이라고 했다. 그가 나에게 어디 사람인지 물었고 나는 타이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신분증상의 본적은 광둥(廣東)이라고 답했다. ‘아! 그럼 대륙 사람(外省人)<sup>4)</sup>이군요!’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대륙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타이완 토박이(本省人)<sup>5)</sup>에게는 별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가 출신 지역을 따지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혼한 지 5년이 되었고 현재 석간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내막 폭로 기사」를 쓴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결혼 상대는 찾았냐고 물었다. 나는 답했다. ‘아직요……. 하지만 공개 구혼에 응해준 사람들 중에 두세 명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는 간부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는 나에게 최근 그 컴퓨터 회사의 운영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 줬고 이는 그가 단독으로 입수한 뉴스라고 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직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고선 아직 그와의 결혼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둘만 남았네요.’라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밖에서 만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나는 어디로 갈 건지 물었다. 그는 신(新) 공원에서 저녁 7시 30분에 만나는 게 어떤지 제안했고 내가 동의하지 않자 그는 신 공원에서 국립 예술관으로 바꾸고 또다시 중정기념당(옆에 있는 공원)으로 바꿨다. 나는 그에게 왜 커피숍에서 만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는 내키지 않는다며 밖이 더 분위기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투에서 일종의 명령과 협박을 느꼈다. 그에게 그래도 커피숍에 가

4) 대륙 사람(外省人): 1949년 전후에 정제스의 국민당 정권과 함께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칭한다.

5) 타이완 토박이(本省人): 타이완 본토 출신을 말한다. 타이완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며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타이완으로 건너오기 전부터 타이완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을 칭한다.



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가도 되나요?’라고 물었고 그는 왜냐고 되물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짓 없이 그에게 답했다. ‘채근담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남을 경계하는 마음은 없어서는 안 된다<sup>6)</sup>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재미없어지네요.’ 그가 말했다.

‘네. 정말로 재미없어지네요.’ 내가 답했다.

우리는 여태껏 만난 적이 없다. 한번은 그가 회사에서는 다른 성(姓)을 사용하니 전화하게 되면 그 성(姓)으로 부르라고 말했다.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고 그는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시다고 답했는데 나는 왜 그의 아버지가 두 분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그와 만나지 않은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아홉 번째 남자

*『그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기회라고 말했다.』*

아홉 번째 남자는 키가 굉장히 컸다. 그는 검정색 정장을 입었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는데 언뜻 보기엔 원주민같이 피부가 가무잡잡했지만 외모는 아주 출중했다.

그의 말투는 비교적 비관적이었으며 표정엔 어색함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일개 셀러리맨이라며 사업에 성공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돈은…….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후에 나는 그가 수차례 똑같은 표정과 동작을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

6) 채근담(菜根譚): 해인지심 불가유, 방인지심 불가무(害人之心不可有, 防人之心不可無)

그는 스물여덟이고 안경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형과 함께 용허(永和)<sup>7)</sup>에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형을 나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형은 이혼을 했고 아이가 있으며 현재 비디오방을 운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의 형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내가 형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형을 대신해서 공개 구혼에 응한 것인지 물었고 그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예전에 여자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그녀의 결혼 상대는 그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사업도 성과가 없어서 꽤 오랫동안 기운 없이 지내면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엔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사교댄스를 출 수 있냐고 묻더니 자신은 춤에 흥미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었던 말을 듣고는 매우 놀라워하면서 「정말 선생님이었어요?」 하고 두 번이나 물었다. 그는 나의 조건이 아주 괜찮다면서 시집 못 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고 했다.

그는 혼자 맥주 한 병을 주문했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려 할 때 화장실 문이 너무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다. 내가 9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자 그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혹시 싫지 않다면 친구로 지내자면서 어디 가서 놀고 싶을 때 자신을 부르라고 말했다.

어두컴컴한 치료우<sup>8)</sup> 앞에 서서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는 또 다시 그의 어쩔 수 없다는 듯 한 미소와 큰 뒷모습을 보았다. 그가 몸을 돌리니 그의 오토바이가 앞에 세워져 있었다.

---

7) 용허(永和): 타이완 북부 신베이시 지역

8) 치료우(騎樓): 1층은 복도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이고 2층은 인도 쪽으로 건물이 나와 있어 비나 햇빛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축양식이다.

## 열 번째 남자

『나는 많은 결혼 상대들 중에서 그가 비교적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마 그의 생김새가 내가 아는 중국 극작가 가오싱젠(高行健)과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나는 시간에 맞춰 Door's라는 가게에 들어갔다. 술집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늘 몇몇 외국인들이 바(bar)에 서서 술을 마시는데 오늘은 어찌 된 영문인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종업원뿐이었다. 7시 55분, 나는 다시 한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가 약속을 어긴 것이었다.

그는 전화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남부 지방에 갔다가 타이베이로 돌아오는 시간을 1시간 앞당겼지만 러시아워에 걸렸다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8시 30분이나 되었고 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나는 다음번 약속 시간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오늘 밤은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11시 15분에 다시 Door's에 도착했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말한 것처럼 책-기보(棋譜) 한 권을 지니고 있었다. 나와 공개 구혼을 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에 순간 나는 그의 성씨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외람되긴 했지만 그에게 ‘저에게 전화건 분이시죠?’라고 물었다.

그는 싱글벙글 웃음을 짓고는 나를 보자마자 예쁘다고 칭찬하며 절대 내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기품 있는 여성을 본 적이 드물어요。」라고 말했다. 그가 계속 이 말을 되풀이 하자 나는 그에게 젠틀(GENTLE) 담배 한 개비를 요구하고선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칭찬으로 인한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에게 오랫동안 내 외모에 대해 열등감을 느꼈다고 말한 뒤 화제를 바꾸려고 했다.

그는 내게 신문에 광고를 낸 일은 정말 용감한 행동이라며 자신은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11시가 넘었는데도 약속 장소에 나온 것 역시 아주 용감한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정말 결혼을 하고 싶냐고 물었

다. 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내 자신이 결혼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년 7월에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 그때가 되면 사업이 안정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과 동업으로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자기의 단점이 바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흔으로 이혼을 했으며 아이는 이미 고등학생이었다. 나는 많은 결혼 상대들 중에서 그가 비교적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마 그의 생김새가 내가 아는 중국 극작가 가오싱젠<sup>9)</sup>과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우리가 자리를 뜨려고 할 때 가게 안에선 영국 코미디언 베니 힐(Benny Hill)이 부른 《다음번엔 나에게 성숙한 여인을 주세요.》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이 노래 가사를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잠시 이 음악을 감상했다. 그는 계속해서 내 뒤에 서 있었는데 이 노래가 우리 둘 사이에 형성된 반어적인 풍자란 걸 알지 못했다.

헤어질 때 그는 전화를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집에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다. 그는 다정하게 ‘정말로 집에 내려다주지 않아도 괜찮겠어요?’라고 물었다.

그다음 만나던 날, 이 아마추어 바둑 기사는 밝은 남색 폴로(Polo) 셔츠에 흰색 자켓을 입고 구두를 신었는데 나는 루즈벨트로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쳤다. 환한 얼굴의 그가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맥도날드가 앞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좀 전에 전화 통화로 탁구 치러 가기로 약속했다. 내가 제안을 했고 그도 좋다고 했다. 우리는 길을 따라 가면서 탁구장을 찾으려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한 행인이 타이완대학 학생활동센터에만 탁구장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망설이고 있는 게 느껴지자 나는 다시 바둑 두러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그의 차로 교외에 있는 기원으로 향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나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란 지나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으니 친구로 지내도 좋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나이가 많아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내게

---

9) 가오싱젠(高行健): 중국 소설가이며 200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다.

미혼인 이유를 여러 번 물어봤다. 나는 내 자신이 아주 특이한 성격이며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지 못하고 괴팍한 성향도 있어서 많은 일에 배타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아직까지 결혼을 안했겠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내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내 자신이 정말 내 설명처럼 괴팍한 것 같이 느껴져서 몸서리를 쳤다. 어쩌면 진정한 나의 모습은 이렇게 폐쇄적인데 단지 내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기원에 들어갔을 때 연세가 지긋하신 아주머니께서 그에게 오랜만에 온다며 말을 건넸다. 그는 나에게 사실 주말마다 이곳에서 바둑을 둔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머니께 나를 가르쳐야 한다며 특별실을 요청했고 아주머니께서 제자를 받아들인 거냐고 묻자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나의 기원 방문을 뿌듯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활기(活棋)와 사기(死棋)가 무엇이고 정안(正眼)과 가안(假眼)이 무엇인지<sup>10)</sup> 등 바둑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모퉁이는 금이고 가장자리는 은이고 중앙은 풀이다.’<sup>11)</sup>라는 명언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그의 바둑돌 한 개를 먹거나 한쪽 면에 살아남기만 해도 나에게 3천 위안을 준다고 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신이 인내심을 갖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7시가 되어갈 때쯤 나는 친구네 집에 가야 했는데 마침 그의 집이 유명한 교회와 멀지 않아서 나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거짓으로 둘러댔다. 그가 바래다주기로 했는데 그는 차 안에서 내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에게 춤을 출 줄 아는지 물었는데 내가 못한다고 대답하자 보통의 젊은이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는 나에게 춤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자신이 가르쳐 줘도 괜찮은지를 물었는데 정말 독특하고도 구닥다리식의 데이트 신청이었다.

---

10) 바둑에서 활기(活棋)는 두면 사는 수, 사기(死棋)는 두면 죽는 수를 뜻하며 안(眼)은 바둑에서 집(가로줄과 세로줄의 교차점으로 바둑알 두는 자리를 말함)을 뜻하며 정안(正眼)은 진짜 집을 의미하고 가안(假眼)은 두다 보면 결국 없어지는 집으로 가짜 집(옥집)을 의미한다.

11) 바둑 초보자들에게 가르치는 말로 바둑판에서 중요한 자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 앞에 도착하자 나는 차에서 내렸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라고 그가 묻자 나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 늦어요!’라고 말했고 나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그 주 월요일은 크리스마스이브였는데 나는 크리스마스이브에 그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가 집에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가 아닌 성숙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내게 누구를 찾는지 묻고는 쌀쌀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한참 뒤, 전화를 받은 그는 마치 잠결에 대답하는 것 같았고 그런 그의 목소리는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바뀌어 있었다. 내가 「별일 아니에요. 담에 배요.»라고 말하자 그는 재빨리 전화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 갑작스러운 전화 사건 이후에 나는 내 자신이 이 남자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줄곧 내 잘난 안목만을 믿고 그가 마흔이나 된 남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었다. 40년 동안 살아온 그의 생활방식, 나는 내가 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이 물러날 때이다.

그래서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다.

## 열한 번째 남자

『그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개 구혼 같은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런 방식으로 어느 누구도 절대로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결혼만을 원한다면 나에게 실망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목숨을 잃는 화(禍)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는 그가 신문의 광고 글을 본 후 나에게 전화해서 내뱉은 첫마

디였다.

그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결혼을 목적으로 공개 구혼을 하는 것은 출발점부터 틀려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은 마치 밥 먹는 것과 같아서 아주 배가 고프는 상황이 아니라면 닥치는 대로 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나에게 전화하는 사람들 중 90%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실제 집 주소를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불도를 닦은 지 20년이 되어 영험한 능력이 있으며 나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가 그의 말에 매료되었다기보다 내 자신이 기이한 일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나는 그와 점심에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원래 그는 나와 타이디엔(臺電) 회사에 가기로 약속했으나 내가 일부러 그곳의 풍수가 좋지 않다고 들었다고 얘기하자 (풍수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 그는 즉시 ‘무슨 소리!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 모두다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저 건물은 높아서 기류가 모이고 바람이 강할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결혼이 목적이 아니면서 왜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의 스승이 자신에게 이치를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은 스승이 세상을 떠나서 자신이 「도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성 친구가 많이 있는데 친구들은 남편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그에게는 터놓는다고 했다. 내가 그에게 ‘그런 이성 친구들과 육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분명없이 묻자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개 구혼 같은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런 방식으로 어느 누구도 절대로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결혼만을 원한다면 돌아오는 건 실망 밖에 없을 거라며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순 없지만 우리 둘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라고 강조했다.

후에 그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내는 매우 아름다우며 사람 됨됨이도 아주 좋고 자미두수(紫微斗數)<sup>12)</sup>에 능통하며 살림을 잘한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친구로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자 그는 ‘소위 말하는 사업적인 컨설팅이겠죠!’라고 답했다.

‘점 볼 줄 아세요?’라는 내 질문에 그는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너무 고상해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적지만 관상을 보면 말년복이 있는 사주라고 말했다. 그의 운명에 대해서 묻자 사람들 모두 그의 운명이 좋지는 않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암울하고 비참한 어린 시절,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고 한동안 사업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맛보았지만 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 일하니 지금은 아주 순탄하다고 했다. 그는 의뢰를 받아 건축 부지의 풍수를 관찰하는데 이로 인해 자주 각종 신문의 광고란을 보면서 토지 매각인을 찾다가 나의 공개 구혼 광고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목숨을 잃는 화(禍)」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그는 타이완의 치안 상황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빠 외국에서면 몰라도 타이완에서 이런 공개 구혼 광고를 내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개 구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물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인데 결혼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결혼하기에 적합한 상대를 만난다면 저는 결혼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난 후에 그의 태도는 마치 나를 아주 존중하는 듯 너무 확연히 예의바르게 바뀌었다. 헤어지기 전에 그는 책이 완성 되면 한 권 선물해 달라고 하면서 시간 되면 얘기나 좀 하자고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일일이 알았다고 했다.

---

12) 자미두수(紫微斗數): 중국의 도교에서 시작한 점술이다. 100여 가지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진 명반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추단하는 것이다.



## 열두 번째 남자

『「생각이 개방적이고 활발하다。」 이는 그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 말로 그는 결혼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마흔인 그는 결혼이 너무 엄숙하다고 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친구들과 동업하여 무역 일을 한다고 말했다. 「생각이 개방적이고 활발하다。」 이는 그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 말로 그는 결혼은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었지만 점차 편안한 솔로 생활에 매료되었고 심지어 결혼하지 않는 편이 걱정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런 뒤에 그는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라고 했다.

나는 ‘어떤 질문인지 들어보고요. 꼭 대답을 하겠다고 말할 순 없네요.’라고 말했다.

그는 성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만약에 없다면 자신이 기꺼이 봉사해 주겠다고면서 예전에 자신과 교제한 여성들은 모두 만족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왜 직업여성을 찾지 않느냐」 고만 물었다. 그는 그것은 상업적인 행위여서 서로 간에 교감이 없다고 했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그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였다.

## 열세 번째 남자

『그는 나의 학력을 물었고 내가 알려주자 몇쩍은 듯 혀를 내밀고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61년 생이고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하고서는 ‘학력이 너무 낮죠?’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그와 월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에게 인상착의를 묻자 그는 자신이 잘생기지 않았고 평차차<sup>13)</sup>를 닮았다고 했다.

대충 몇 마디 나눈 후에 내가 용강지에(永康街)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 게 어떠냐고 하니 그는 기꺼이 응해 줬다.

우리는 돌로 된 테이블과 의자 앞에 앉아서 이야기했다. 그날 오후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햇빛도 따사롭게 비추는 날씨가 좋은 날이었다. 아이들 몇몇이 우리를 에워싸더니 숨바꼭질 놀이를 했고 두 명의 여자 아이는 또 다른 돌로 된 테이블과 의자 앞에서 소꿉놀이를 했다. 아이들은 놀이에 열중하느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원래 유흥주점 지배인으로 일했었는데 매일 저녁쯤 되면 머리를 굴러가며 「친구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도록 했다. 그렇게 최대한 많은 술을 팔아야만 가게와 이윤을 나눠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가 하는 일이었다.

그는 남부 지방 사람이어서 타이베이 사람과 이곳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게다가 오랫동안 남의 집에 얹혀살고 떠돌아다니며 정착하지 못해 이제야 결혼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나의 학력을 물었고 내가 알려주자 멧쩍은 듯 혀를 내밀고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별로 말이 없었다. 우리가 공원을 나왔을 때 그는 오락하러 가야겠다고 했지만 나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이야깃거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와 헤어질 때 갑자기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찌면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공개 구혼은 정말이지 쉽지 않다.

---

13) 평차차(澎恰恰): 타이완 코미디언이다.

## 열네 번째 남자

『그는 또 나에게 ‘왜 텔레비전으로 공개 구혼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나요? 효과가 더 클 텐데요.’라고 물었다. 내가 텔레비전 광고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답하자 그는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결혼이 성사된다면 가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자신은 악덕 상인이 아니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건설업자로 중국에서 기성복 장사도 한다면서 마흔이 됐는데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미안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혼 중인 상태이나 아직 이혼 수속은 끝나지 않았는데 아내를 원망해서 사인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가 아내를 원망하는 데는 아내가 아이들을 싫어해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도 않았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세상 여성들이 다 자신의 아내와 같은지 묻고는 여자들은 옷 한 벌 사기 위해 다섯 시간을 걸어 다닐 수는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동료들에게 여자와 함께 쇼핑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했다. ‘당신은요?’ 그가 나에게 물었다.

‘저는 옷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오라고 손짓하면 오고 가라고 손짓하면 간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나에게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에게 재혼할 생각이 있는지 되 물었다. 그는 굳이 애써서 결혼 상대를 찾지는 않을 거라며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은 원래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나 붙잡고 결혼할 수는 없다면서 심지어 새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도 귀찮아해서 3년 동안 겨우 친구 한 명을 사귀었다고 했다. 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 중에 어떤 이들은 현장(縣長)<sup>14)</sup>, 입법위원으로 선거에 나갔는데 당선 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아주 실망했다는 말 까지도 했다.

14) 현(縣): 중국 행정 구획 단위의 하나로 지구(地區),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밑에 속한다.

그는 예전에는 가는 곳마다 남에게 끌려 다녔는데 아내와 헤어진 후 몇 년 간은 세상에 나 혼자 밖에 없는 것 마냥 즐거운 시간이 많았고 본인과 아이들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두려운 건 없지만 사람은 두렵다면서 외로울 때면 낚시를 하거나 책을 사다 읽고 혹은 한밤중에 혼자 차를 몰고 깊은 산 속까지 가서 자리를 찾아 놓고선 「고독함을 느끼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고집이 센 편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저 강요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답했는데 그는 되레 ‘여자들은 모두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강요로 끝나요.’라고 말했다. 「여자를 잘 아는 것 같네요?」라고 내가 묻자 그는 여자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잘 알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화였다. 그의 집에 친구가 방문하는 바람에 우리의 대화가 급하게 끝나게 되자 그는 나에게 연락처를 남겨 줬다.

두 번째 대화에서 그는 자신이 30년 동안 일기를 썼는데 갑자기 더 이상 일기를 쓸 수 없었다며 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그는 친구와의 의리를 중시하는데 가끔씩 불필요하게 곤란해 질 때가 있다며 이는 부모님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는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며 나에게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일수록 당신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못할 거라며 연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미친 듯이 맹목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며 연애를 해보지 않은 거라고 말했다.

‘그래요?’ 내가 대답했다. 그날 우리는 8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에 대해 얘기했는데 나는 내 자신이 몹시 내향적인 여자이며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미혼인 것처럼 말을 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그런가하고 내 자신조차도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가 자신은 타이난(臺南) 사람이라고 말하자 나는 그에게 어찌면 이렇게 국어를 잘하는지 물었는데 그는 나의 어폐를 꼬집어내며 ‘중국 본토의 발음이 가미된 베이징어(北平話)라고 말해야죠.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국어」 할 줄 아냐고 물어보면 이상해져요.’라고 했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은 중국 본토의 발

음이 가미된 베이징어가 아니라 타이완 발음이 가미된 표준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걸 깜박했다. 물론 내 중국어도 마찬가지였다.

‘공개 구혼 글은 이렇게 잘 썼는데 왜 신문에 공개 구혼할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이것은 그가 나에게 느낀 감정이었다. 그는 또 나에게 ‘왜 텔레비전으로 공개 구혼하는 걸 생각지 않았나요? 효과가 더 클 텐데요.’라고 물었다. 내가 텔레비전 광고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답하자 그는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결혼이 성사된다면 가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적합한 결혼 상대를 찾기 힘들겠지만 정말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을 전형적인 타이완 사람이며 가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남자라고 소개하면서 현대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 게다가 아이들을 목숨같이 사랑해서 전처조차도 샘낼 정도니 다른 여성들은 더욱 그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여자 친구와 교제한 적이 있지만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싶진 않았으면서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즐겁고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꿈꾸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를 격려했다. 「당신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그는 내 축복의 말을 끊으며 ‘나는 일부러 찾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러 찾는다면 실망이 클 거예요.’라고 말하고선 나에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물었다. 나는 「그럼 기다려 보세요.’라고 했다. 그가 ‘사실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자 나는 ‘그럼 뭘까요?’라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사랑에 대해 ‘인연을 만날 수 있으면 행운이고 인연을 만날 수 없으면 운명이다.’라는 숙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번은 그가 차를 몰고 가오슝(高雄)으로 가고 있는데 강산(岡山)에 도착할 즈음 날은 이미 저물었고 늘어서 있는 집들 사이로 하나둘씩 켜지는 등(燈)이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 받았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불빛들은 행복한 가정을 상징한다며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이 여전히 곳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번 대화로 나는 그가 진실되지만 모순적이고 그리고 너무 낭만적인 사람이

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고 그때마다 전화기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목소리는 약간 쑥스러운 듯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전화 상의 목소리보다 젊어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는 걸음이 너무 빠르다며 걸음이 이렇게 빠른 여자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빨리」 이 타이틀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우리가 쓰촨(四川)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을 때처럼 그는 계속 나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내가 계속 그의 말을 중단시키자 그는 내게 잘 피해 나간다고 말했다. 나는 뭘 피하는 걸까? 공개 구혼? 아니면 그를? 그것도 아니면 내 자신을 피하는 걸까?

나는 꿈속에서 옷을 가슴에 품고 밧줄로 이루어진 작은 다리 부근에 갔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다리를 오르는 것보다 물을 건너는 편이 더 빠를 것처럼 보였다. 내가 이 꿈을 그에게 말해주니 그는 나더러 해몽을 해서 당첨 번호를 알아내 함께 복권을 사자고 했다. 나는 공개 구혼이란 이 일이 약간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일부를 드러내야 하는가?

내 스스로 공개 구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격이 괴팍해 시집 못 가는 이유가 있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나는 왜 내 자신이 공개 구혼자임을 인정하길 원하지 않는 걸까? 나는 공개 구혼에 응해준 사람에게 내 자신을 설명할 때 자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내가 묘사하는 그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는 나와 닮았다고 믿고 있지만 나도 가끔은 헛갈린다.

나는 그와 자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나눌 수 있는 대화는 다 나누었을 만큼 많은 대화를 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 열다섯 번째 남자

『그는 출국을 해야 한다며 나에게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 같이 출국할 수 있다고 했다.』

삼십 대 초반인 그는 미혼이었다.

몇 년 간 계속 해외에서 사업을 하느라 결혼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평상시에 절대 신문 광고란을 보지 않는데 최근 광고 내고 싶은 게 있어서 신문을 살피다가 나의 공개 구혼 광고를 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특 까놓고 말해 봅시다. 돈이 필요한가요?’라고 말했다.

그가 내가 직업여성인지, 이 광고가 음란 퇴폐 광고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저 솔직하게 ‘아니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즉시 그의 말주변이 좋다는 것에 주목했고 전화 통화에서 그가 말한 내용들은 나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독일에 있었는데 원래 그곳에서 부동산을 사려고 했다거나 또 회사 책임자인데 여태껏 직원과 교체한 적이 없는데 그를 남몰래 짝사랑하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 나는 그가 하는 말이 허세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그런 후에 그는 아주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 작년에 죽었는데 이 일로 인해 죽을 것 같아서 오랜 시간 술로 지새웠고 나중에야 술을 끊고 일에 몰두하면서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잊었다고 했다.

그는 내가 다시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다.

우리 둘은 낮 근무 시간에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시간을 잘못 기억하는 바람에 30분이나 지각해 버렸다. 레스토랑 안에는 몇몇 일본인과 미국인이 있었는데 나는 내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굽 소리를 들으면서 그와 만나는 일이 진실되지 못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전화 녹음기에 메시지를 남겼다. ‘늦으셨군요. 참을 수가 없군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 우리는 어제와 같은 호텔 로비에서 만났다. 그의 외모는 나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다. 그는 갈 만한 좋은 곳을 알고 있다고 했고 나

는 그를 보며 ‘좋습니다! 가죠.’라고 말했다. 그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나도 그를 따라 탔는데 갑자기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나는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고 느꼈다. 12층에 도착했고 나는 만약에 그가 룸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문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복도 모퉁이에 있는 소파 근처로 걸어가서는 나에게 말했다. ‘어때요? 대화 나누기 아주 좋지 않아요?’ 나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나에게 왜 맞은편에 앉느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멀리 앉는 것이 편하다고 답했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줄부 사장 같았다. 그는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가 찾고 있는 상대는 그와 맞고 당장이라도 그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지금 당장」 자신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아직 당신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내 자신이 그를 조금도 맘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파에 앉아 있을 당시에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바로 거절하지 못했다. 이것은 나의 안 좋은 습관인데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며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집에 가야할 것 같아요. 당신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함께 그곳을 벗어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가 나에게 생각해 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묻자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고 그가 나에게 정확한 기한을 요구하자 나는 ‘이틀이요.’라고 답했다.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출국을 해야 한다면 나에게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 같이 출국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자신감에 차있는 기세등등한 말투로 인해서 나도 갑자기 용기를 얻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었다.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땐 우리 둘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그는 잠시 멍칫 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 열여섯 번째 남자

『그는 나와 전화 통화에서 결혼은 원치 않으며 친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는 바로 그에게 나는 결혼을 원하고 「친구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서른이 넘은 그는 기혼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외모는 봐줄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결혼은 원치 않으며 친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나는 바로 그에게 나는 결혼을 원하지 「친구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결혼 전에 먼저 친구로 지내야 되지 않나요?’라고 묻자 나는 당신이 말하는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선 알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툭 터놓고 서로에 대한 느낌이 괜찮아야 좀 더 깊이 교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별생각 없이 대답했다. 깊이 교제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나는 우리 두 사람의 「친구」에 대한 생각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은 생각이 아주 보수적이지는 않다고 하면서 때론 상황에 따라 남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 단지 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그건 아주 정상적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며 사람들은 모두 욕구가 있다고 말했다.

내가 ‘성적 파트너를 찾는 건가요?’라고 묻자 그는 ‘맞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라고 답했다. ‘그럼 왜 직업여성을 찾지 않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는 자주 가면 너무 비싸고 위생적으로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럼 공짜 섹스 파트너를 찾으려는 거예요?’라고 물었고 그는 ‘공짜는 아니고 가끔 내가 받으며 목걸이 등을 사줄 수도 있죠.’라고 말했다. 그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생각이 너무 유치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건 사실이며 유치한 것이 아니라면서 예전에는 파트너를 심사숙고해서 찾지 않았었는데 「경험이 있어야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최근에 찾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와

는 속궁합이 맞지 않는데다가 다양한 섹스 경험을 갖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받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내가 묻자 그는 있다며 어떤 여성들은 자신과 함께 있으면 하고 싶어 안달이나 견디질 못한다며 침대에서 비명을 지르고…….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면서 천박한 말 좀 그만 하라고 했다. 그는 이견 천박한 것이 아니라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말했다.

나는 갑자기 치욕스런 느낌이 들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 버렸다. 그 후, 당연히 그와 연락이 끊겼다. 나는 왜 치욕스러운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화가 난 이유는 그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남녀 간의 교제가 단지 육체적 관계뿐이라고 생각해서인가? 아니면 그의 남성 우월주의가 나의 반감을 산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의 생각일 뿐인데 나는 왜 화가 났을까? 그리고 왜 치욕스런 느낌을 받았을까? 그가 나에게 강요하거나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 열일곱 번째 남자

*『내가 화제를 바꿔서 정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생각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는 거라고 답했다.』*

열일곱 번째 남자는 표준어를 할 때 광동 말투가 섞여 있는 마흔 살의 싱가포르인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현재 친구들과 동업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큰 회사 같았다. 그는 굉장히 점잖은 말투로 얘기해서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는 결혼을 한 적이 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했고 몇 년 간 타이완과 싱가포르를 왕래하다보니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해서 사랑이라는 일을 계속 방치해 두었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 「어

린 애」를 소개받았는데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서 장차 생활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면서 더군다나 이런 어린 애들 모두 처음에는 아주 「착했지만」 점점 태도가 변했고 친구 한 명도 혼쫓이 난 적이 있다고 했다.

친구는 그보다 열다섯이나 어린 원주민 여자아이와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어린 아내는 옷과 액세서리를 사며 치장하는데 돈을 썼고 집안일 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매일 마작을 하고 수십만 위안을 따고 잃자 그의 친구는 견딜 수가 없어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했다.

내가 화제를 바꿔서 정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생각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는 거라고 답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치안이 좋긴 하지만 타이완은 활기가 넘치고 노래방 같은 곳도 많다면서 노래방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옛날 표준어 노래를 잘 부른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러고는 나에게 「당신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아! 죄송해요. 저는 노래를 전혀 못해요.’ 내가 말했다. ‘타이완 사람들은 모두 노래를 잘하지 않나요?’ 그가 또 물었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화제를 찾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인사치레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했고 이로써 열일곱 번째 남자와의 대화가 끝이 났다.

## 열여덟 번째 남자

『그는 정말이지 잘생겼지만 미간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울함이 있었다. 나는 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본인을 전형적인 쓰촨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호탕하고 부드러운 성격에 쥐엔춘<sup>15)</sup>에서 성장하였으며 공군을 전역했

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을 지속할 수 없고 자주 손해 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직업을 바꾼다고 했다.

우리는 교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대부분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친구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단지 그의 얘기를 듣고 생긴 그의 이미지였다.

그에게 받은 두 번째 인상은 지나간 청춘에 지나치게 빠져 있고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라디오 음질이 깨져도 상관없다며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고 했는데 이 점은 나와 비슷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는 길을 가는 많은 여자들이 뒤돌아볼 정도로 잘생겼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쳐다봐 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원치도 않았던 것들을 지금은 가질 수도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예전에 들었던 동화 한 편이 생각났다. 한 아이가 선녀를 만났는데 선녀는 돌멩이가 많이 깔려 있는 좁다란 길목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 선녀는 아이에게 길에 있는 단 하나의 돌만이 너의 것이고 좁다란 길은 건널 수만 있지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이는 아주 신이 나서 건너갔다. 아이는 이 돌들이 모두 빛이 나고 눈부신 보석인 걸 알게 되었고 가장 큰 것을 골라 가질 생각이었다. 처음에 아이가 큰 보석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어 들었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아 더 큰 것을 발견하였다. 아이는 망설이면서 마음속으로 ‘더 먼 곳에 더 큰 보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에 있던 보석을 던져 버렸고 계속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돌을 바꿨다. 현대 보석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에 아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좁다란 길의 끝까지 와 버리고 말았다.

그는 「하지만 저는 아직 인생의 끝자락까지 간 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공군 전역한 그는 자신이 푹푹하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평소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한 푼 한 푼 절약해야했고 게다가 시국도 좋지 않아 돈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잘 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몇 년 전에 그는 미국에

---

15) 쥐엔촌(眷村): 국공내전 때 중국 본토에서 쫓겨난 국민당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던 마을이다.

서 돌아온 돈 많은 화교 한 분을 만났고 원래 그 돈으로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그 화교 부모님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일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내가 외국에도 나가본 적 있어서 「바깥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자고 했다. 나는 외국에서 생활하려면 반드시 언어를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언어는 두 번째 조건이며 중요한 것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전기 수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그런데 저는 기술이 없는데요..」라고 말하자 그는 상관없다며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행동이 굼떠서 잘 배우지 못해요..」 그는 나의 거절을 알아차린 듯 했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았다.

우리는 한 번 만났다. 그는 정말이지 잘생겼지만 미간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울함이 있었다. 나는 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사실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겁이 났는데 내가 그의 우울함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의 존재가 나에게 '나도 내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삶의 끝자락에 이르지 않았다.

## 열아홉 번째 남자

『10분이 지나서야 나는 그가 외국인이라 아니라 「외국에서 자라 영어 사용이 습관이 된 사람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Want to find a woman with whom I can really talk to…….

(진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그는 새벽 1시 30분에 전화를 걸어 와선 영어로만 얘기했는데 나는 잠결인데

도 그가 공개 구혼을 하려는 것인지 알아차렸다. 그는 낮에 전화 연결이 안 되서 밤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10분이 지나서야 나는 그가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자라 영어 사용이 습관이 된 사람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중국어도 할 수 있었다. (중국인과 같은 수준이다.) 나이는 약 마흔 정도이고 미국에서 공부했으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과학을 연구했고 오랫동안 연구에 집중하다보니 지금까지 미혼이지만 아주 많은 학위를 받았다고 했다.

부모님은 미국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며 가정교육이 매우 엄격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전에 한 여성과 결혼 얘기가 오고 갔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family tragedy(가족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런 다음에는요? 설마 다른 여성과 교체하지 않으신 건 아니죠?’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몇몇 알고 지내긴 했지만 깊은 사이는 아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여성을 깊이 사랑해서 점차 일을 도피처로 삼으며 청교도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결혼에 대해 아주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다며 자신의 학생이 나의 공개 구혼 광고를 알려준 것인데 그 학생이 자신보다 더 본인의 결혼 문제에 조금해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관계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만화경 속의 배열들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바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결혼을 생각하신지 오래 되었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맞아요. 최근 이삼 년 사이에 더 간절하네요.’라고 답했다.

그는 계속해서 남녀 사이의 교체는 일종의 충돌의 과정이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는 영어로 답했다. ‘충명하고, 활발하고, 이해심 많고…….’ 그리고 몸매를 중요시하는데 얼굴은 안 따진다고 했다.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된 그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고 자신이 미국에 있을 당시 외롭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면서 혼자서 방이 일고여덟 개나 있는 서양식 집에서 살았고 평소에 가끔씩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했고 십 몇 년 동안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는 조금도 진실되거나 정상적

인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 끝내 그에게 아주 예의 없는 질문을 던지고 말했다. 나는 짧은 시간 내에 그를 한층 더 이해하기에는 이 질문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여자를 못 만나 보셨다는데 성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질문에 조금도 개의치 않은 그의 모습이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나의 무례한 질문은 대부분 그의 말을 믿지 못한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면서 플로리다 주(州)에서 단백질 인형 리얼 돌(Real doll)을 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유행이라고 말했다.

나는 점점 그의 말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다. 내가 사람의 약점에 동정심을 느끼는 것인가? 아님 나에게도 약간의 관음증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와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어찌되었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비밀스런 권력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내가 방금 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 일들을 기록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묘사한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어찌면 당사자들만이 자신이 남긴 흔적을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의 사생활을 침범했다고 그가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그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당연히 그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열아홉 번째 남자, 나는 그의 영문 이름만 알 뿐 만나본 적은 없다. 그저 세 차례의 전화 통화만 있었을 뿐이었다.

## 스무 번째 남자

『그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 주겠다면서 결혼은 절대 위험을 무릅쓰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만에 하나 아이를 낳았는데 상대방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른이 넘은 그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좋아한다고 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겠죠!’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왜 「…겠죠.」인지 물었고 그는 ‘왜냐하면 주목할 만한 조건이 아니니까요.’라고 답했다. 그는 공공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고졸이 뭐가 어때요?’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오히려 「내가 응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그때 누가 누구의 공개 구혼에 응한다는 건지 헛갈렸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만약에 공개 구혼을 한다면 혹시 공개 구혼에 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건강 상태라고 답하며 자기 생각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 후에 그는 갑자기 평소에 동료들 앞에서는 말도 잘하고 잘 웃고 우스갯소리도 잘하는데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세요.’라고 제안했다. ‘결혼이라……. 결혼은 어느 정도 운도 있어야 된다는 것, 음! 결혼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그는 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마치 고시 치르는 것 같아 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여자 친구와 교체한 적이 있는데」 서로 맞지 않았고 연분이 아니었다며 자신이 젊었을 때는 항상 어른스럽지 못했고 지금은 곧 마흔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나이가 든 것은 아닌지 이번 생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아 아이와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며 자신은 아이가 없어서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운다고 했다. 몰티즈, 요크셔테리어, 포메라니안 등등 명견(名犬)들을 키우는데 부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에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의 취미는 낭송이었다. 그는 때때로 심심할 때 책을 꺼내서 노래 부르듯이 읽거나 마치 염불을 외는 것처럼 중얼거리면서 「막힌 한숨을 내뿜는다.」 만약 그래도 신이 나지 않으면 목청껏 몇 곡을 더 부르는 데 이것은 본인의 조그마한 결점이니 너무 개의치 말라고 했다.

그가 나에 대해 자세히 묻자 나는 하나하나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중성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내게 생활이 불규칙하고 불면증이 잦으며 업무 부담이 있고 두통이 있을 수 있으며 매우 우울하다고 초기 진단을 내렸다. 그는 나에게 결혼 생각이 있는데 왜 소개를 받지 않고 굳이 신문에 광고를 내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지 물었다. ‘나한테 남편을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어요.’라고 내가 답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선 나에게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나는 ‘당연히 좋아하죠.’라고 답했다. 그는 또 「누구와 함께 영화 보러 가나요?」라고 물었다. 내가 대부분은 혼자 가서 본다고 대답하자 그는 계속 놀라면서 ‘혼자서 영화 보러 가면 사회에서 버려진 기분이 들지 않나요?’하고 물었다.

「그렇지 않아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신문에 공개 구혼을 낸 것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이제껏 공개 구혼을 한 적이 없는지 물었다. 그는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짜증났다면 결혼 정보 회사에서 소개받았는데 소개비가 5백 위안이라고 했다. 그는 소개받은 여성과 밖을 걷고 있는데 얼마 걷지 않아 잡화점이 보였고 그 여성이 잡화점에 들어가서 일이천 위안하는 분유를 사더니 돈을 안 가지고 나왔다면 그에게 먼저 대신 지불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여자가 「기어코 그에게 돈을 지불 하라고」 하자 사기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잡화점을 나오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 동료들이 모두 그를 유머 있다고 말하는데 나랑 같이 있으니 유머도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내가 어려움을 무릅쓰는 정신이 너무 강하다며 「몽고 시대 여전사에 어울린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 주겠다면서 결혼은 절대 위험을 무릅쓰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만에 하나 아이를 낳았는데 상대방이 책

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가 결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며 인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만 가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면서 가(家)란 한자는 갓머리(𠂇)에 돼지시(豕) 자가 더해진 것으로 성급하게 가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물며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주도면밀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5년 동안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에 그는 나에게 자신이 공개 구혼 응시자라면서 이 시험에 순조롭게 통과했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아직 구술시험만 통과했고 학과시험과 기술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사실 공개 구혼은 시험이 아니고 그저 공개 구혼일 뿐이에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 스물한 번째 남자

*『그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지난 어느 날, 내가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그를 봤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알아볼까 매우 두려웠다.』*

그는 마흔 가까이 되었고 이혼한 지 7년이 되었으며 연주가였다.

‘아! 음악가’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그저 음악쟁이라며 소리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꽃무늬 셔츠에 아이보리 긴바지를 입은 남자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쳤고 예전에 자신과 통화했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전처와 성격이 맞지 않았고 게다가 전처가 마작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그녀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합의이혼 후에 그는 아주 많이 후회했지만 이 또한 운

명이라고 했다.

전처는 두 명의 딸을 남기고 떠났는데 큰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작은딸은 초등학교에 다닌다. 그에게 전처가 왜 아이들을 원치 않았는지 물으니 전처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재혼하기 어려울까봐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간 살집이 있는 편이었고 피아노 칠 때는 아주 집중했다. 어떤 이가 노래 신청서를 그에게 전해 주자 그는 종이를 한번 보고는 악보를 넘기면서 프로 정신이 풍기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베이더우(北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가족 삼대로 「악단을 했고」 평소에도 자주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하며 베이스기타, 전자건반 모두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다. 그는 삶이란 바쁘고 잔혹하게 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낮에는 녹음실에서 작업하고 가이드 녹음을 하는데 홍릉홍(洪榮宏)이나 예치티엔(葉啓田) 등 타이완 노래 음반 제작이 비교적 많다고 했다.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연주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빠서 아이들 돌볼 시간조차 없다고 했다.

나는 ‘틀림없어, 바로 저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다. 그는 브레이크타임에 무대에서 내려와 다른 연주자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후에 나는 세련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그를 불렀고 그들이 나의 시선을 벗어나는 곳으로 가버린 것을 보았다.

그는 이혼한 경력에다가 돈을 좀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어 돈을 번만큼 써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이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형 악기를 구입하는 등 물건 사는 것도 좋아해서 저축한 돈은 많지 않지만 집이 있어서 그런대로 지낼 만 하다고 했다. 그는 낚시, 사진 찍기와 가끔 게임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취미가 없었다.

그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혼 상대는 두 딸에게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일을 함께 나눠서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연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혼 후에 간간히 여성들과 교제하긴 했지만 진지하게 교제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최근 몇 년 간 동성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들과 불교 철학의 교리를 연구하고 차를 마시기도 했다. 그는 동성 친구와는 쉽게 말이 통하는데 「여자와 함께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나는 세련되게 차려입은 그 여성을 기억하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추궁하지 않았다.

나는 ‘불교에 귀의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또 결혼할 생각을 가졌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생각이 깨어 있어서 나와 연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은 속이지 않는 것이라며 친구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 준다고 했다.

한번은 애완동물샵 사장님이 그에게 기니피그를 키워 보라고 했는데 사장님 말이 너무 그럴싸해서 마음이 동해 키우게 되었지만 이 일은 정말이지 따분하고 번거로웠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그 가게에 가지 않았고 기니피그도 죽어 버렸다.

그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지난 어느 날, 내가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그를 봤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알아볼까 매우 두려웠다.

그가 나에게 다시 연락할 거냐고 묻자 나는 전화를 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나도 그에게 전화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 스물두 번째 남자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나요?」 그는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다. 아마도 약간의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했다. ‘말이 통하고 신중하며 책임감 있고 유머감각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취미는 드라이브였다.

검정색의 롱코트를 입고 나온 그는 공개 구혼자 중 가장 젊은 사람이었다. 전화 통화에서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완곡하게 말했다

만 그는 자신이 성숙해 보이는 편이라며 꼭 만나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신성난루(新生南路)와 신이루(信義路) 입구에서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 그날 바람이 무척 심하게 불었다. 겨울 오후의 한풍(寒風), 나는 길 입구에 서서 10분 동안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약간 ‘당했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상관없기도 했다.

두 번째 만나기로 한 장소는 푸싱베이루(復興北路)였다. 그의 얼굴은 희고 깨끗했으며 말할 때마다 자신이 실수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 하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차츰 그가 말을 더듬으며 표현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푸싱베이루(復興北路)를 걸어가면서 커피숍을 찾고 있을 때 가랑비가 내렸다. 그는 자기 손에 들려 있는 우산을 펼쳐 내가 비를 맞지 않게끔 해 주었다. 나는 좀 민망해서 치로우로 걸자고 제안했는데 우연히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치로우에 서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꽤 여러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이 그를 친구에게 소개시키기를 원치 않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혹시 다른 상상을 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와 헤어지고 친구네 집에 가서 수다나 떨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나 다행히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미핑(蜜蜂)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다. 분명 타이베이시의 가장 마지막 미핑(蜜蜂) 커피숍일 것이다! 그는 오후 10℃의 날씨에 아이스커피를 마셨으며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왜 결혼이 하고 싶은지 여자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는 여자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은 있지만 「여러 조건으로 인해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에 그는 또 말을 바꿔서 여자 친구를 여러 명 사귀어 본 적이 있으나 상대방을 사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비스듬히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 비교적 성숙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오이디푸스콤플렉스<sup>16)</sup>가 있는 건 아닌지 묻자 그는 아주 놀라며 나와 나이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미성숙한 여성을 알고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집안을 언급하

---

16) 오이디푸스콤플렉스(Oedipus complex): 남성이 부친을 증오하고 모친에 대해서 품는 무의식적인 성적 애착이다.

면서 아버지는 고위 간부 경찰관이며 그와 교제하는 여성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나요?」 그는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다. 아마도 약간의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했다. ‘말이 통하고 신중하며 책임감 있고 유머감각 있는 사람ियो.’

그는 이 조건들 가운데 자신은 단지 유머감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내가 안타깝다고 말하자 그는 또 고개를 떨궜다.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꼬마 아이와도 같았다. 할머니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남자 꼬마 아이 말이다. 나는 그의 손의 아직 낫지 않은 상처 두 개를 발견하곤 갑자기 약간 안쓰러워졌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은 연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할 때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저 ‘좀 더 앉아 있어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잠시 앉아 있는 후」 자리를 떠났다. 그때가 저녁 7시였다. 그날 저녁 11시에 그가 또 전화를 걸어 와서는 우리 집에 와도 되는지 묻고는 집 인테리어를 보고 싶다며 집안 인테리어를 보면 한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에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전시회 스태프로 오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모두 거절하곤 ‘행운을 빌어요.’라고 한마디 건넸다.

## 스물세 번째 남자

『나 역시도 가끔은 피로울 때가 있지만 그의 우울함에선 너무 많은 자기 학대가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전갈자리였으며 차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탄화토우(談話頭)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가 맛이 없다고 말했던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

에게 늦어서 미안하고 어찌면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니 그의 표정이 자신도 모르게 변해 버렸다.

일요일 오후의 약속은 그가 너무 바빠서 일고여덟 번이나 연락을 한 후에야 겨우 정해진 것이었다. 그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서 매일 4시간밖에 못 자는데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기 싫어서였다.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원치 않다고 했다. 여자 친구 집엔 형제자매들이 많아서 말도 많고 이견이 자주 생겼으며 본인 식구들 간에도 화목하지 않다면서 어머니 장례가 작년에야 끝이 났는데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기 시작해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쓰며 주말이면 낚시나 간다고 했다. 약속에 오기 전에 그는 아침 일찍부터 낚시 센터에 가서 10시간 동안 낚시를 했다고 말했다.

‘물고기들은요?’ 내가 물었다.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모두 낚시 센터에 주고 왔다고 하면서 생선에 가시가 너무 많아 먹기가 번거로워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낚시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그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에 내가 너무 놀랐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그는 젊었을 때 좀 더 벌어야 늙어서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그는 만약에 우리가 교체한다면 직장 하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사실 내가 놀란 이유는 나는 게으르고 출퇴근 시간 체크하는 것조차도 질색하며 한 가지 일도 할 수 없는데 그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점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집과 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 우육면(牛肉麵)을 먹었는데 나는 내 자신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그의 정서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삶의 분위기를 열심히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도 그의 지나치게 검은 입술 색이 싫은 건지 아니면 떨쳐버릴 수 없는 그의 우울함이 싫은 건지 잘 모르겠다. 나 역시도 가끔은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의 우울함에선 너무 많은 자기 확대가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정말로 나와 결혼하고 싶은 것일까? 나는 정말이지 모르겠다.

그는 일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한 공개 구혼 남성이었다. 그 후, 어쩌면 그는 자신의 낚시 세계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나의 무의미한 생활로 돌아왔다.

## 스물네 번째 남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것인지 물었다. 그가 살림이라는 것은 매일 밥하고 빨래하는 일이라고 말하자 나는 ‘그럼 하녀를 고용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라고 아니꼽다는 듯이 한마디 던졌다. 그는 잠시 멍칫 하더니 「제가 가끔씩 도와주기도 하겠죠!」 라고 말했다.』

뚜렷하지 않은 이목구비, 비뚤어진 글씨, 이는 내가 그에게서 느낀 인상의 전부였다.

나는 공개 구혼 광고를 신문에 세 번 냈는데 그는 세 번 모두 공개 구혼에 응했다. 같은 남자의 목소리, 똑같은 말투, 그는 언제나 먼저 자신의 프로필을 나에게 보내 주겠다면서 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같은 주소,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는 매번 프로필을 보내왔다. ‘우(吳) 양에게…….’ 편지 안에는 항상 취업용 이력서 서식과 신분증 사본이 있었다.

나는 그가 이제껏 보내온 세 장의 이력서를 자세히 들여다봤고 놀랍게도 나이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보내온 것은 서른다섯 정도, 두 번째 것은 서른여섯 정도, 마지막 것은 서른여덟이었다. 학력은 전문대 토목건축과 졸업이며(?) 예전에 맡았던 직무는 건축 관련 보조 엔지니어와 토목 도면, 측량 도면 등을 그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비뚤비뚤한 글씨를 알아보기가 힘들었으며 그는 「경력란」에 정직(正職), 진취적, 집·저축 있음, 출세하여 성공함, 안 좋은 습관 없음, 인품이 바름, 신중하고 착함, 진실한 결혼과 인연을 기다림이라고 기입하고선 마지막에 한결같이 ‘만약에 혹시 전화 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신으로



알려 주길 바라며 당신의 회신을 기다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가장 웃겼던 것은 「희망 대우란」에 적힌 ‘식사는 제공하지 않음’이었다.

나는 그가 적어 놓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민난어(閩南語)를 사용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아주머니는 자신이 그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며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말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신문 구독자인지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러시아워에 걸려서 여덟아홉 시나 되어야 집에 오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시 연락하라고 했다.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끊기 전에 「놀러 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침내 그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전화 받을 때 아무 말도 없었고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한참 동안 하고 나서야 그는 ‘누구를 찾으세요?’라고 말을 내뱉었다. 나는 그에게 공개 구혼을 하고 싶은 게 맞는지 물었고 그는 그제야 온화한 말투로 ‘맞아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어떤 부류의 결혼 상대를 찾고 싶은 건지 물었고 그는 잠시 생각한 뒤에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며 너무 까다롭지 않다고 하면서 살림을 잘하는 여성이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것인지 물었다. 그가 살림이라는 것은 매일 밥하고 빨래하는 일이라고 말하자 나는 ‘그럼 하녀를 고용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라고 아니꼽다는 듯이 한마디 던졌다. 그는 잠시 멈칫 하더니 「제가 가끔씩 도와주기도 하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사회는 변화가 너무 빠르다며 자신은 옛 것을 고수하는 전통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미래의 결혼 상대가 신중하고 성숙하며 여성스러우면서 인생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여자는 출가 후에 일생토록 남편을 따를 수 있어야」 하고 보수주의의 장점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사업에 성공하였으나 혈혈단신으로 지내다보니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불교에 믿음이 깊다고 하면서 결혼 후에 그의 아내도 반드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해야 고부 관계가 원활해 진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을 못해서 설이나 명절 때 어머니가 자기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신다며 자신이 불초자식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그는 예전에 「몇몇 여성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자신이 너무 까다로웠고 너무 내성적이기도 해서 자주 차였다면서 「자기가 자신을 해한 셈」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잘생기지도 멋스럽지도 않은 점이 중년이 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라고 했다.

평소에 그는 퇴근하면 집에 가서 비디오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데 때론 휴일에 혼자 밖으로 나가 쇼핑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친구들은 모두 현명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지만 그의 곁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들까봐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이렇게 해야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나이 들어서 의지할 데 없어 외로우며 더욱 비참한 것은 나중에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이지 그의 「올바른 인생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다. 그에게 ‘당신이 찾고자 하는 분은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네요. 저는 적합하지 않네요.’라고 말하자 그는 「당신은 이미 서른이 넘어서 아주 적합합니다.」라며 서른이 넘은 여자는 모두 신중하며 성숙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저는 집안일 할 줄 몰라요. 게다가 당신과 함께 생활한다면 너무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네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진정한 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줄곧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해서 시간이 너무나도 길고 따분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나는 단 1분도 그와 함께 생활하고 싶지 않았다.

## 스물다섯 번째 남자

『그는 약혼녀에게 빚을 갚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기도 했지만 결혼할 수 없었고 40여 년을 고통의 세월 속에서 보냈다고 했다.』

그는 환갑을 넘겼으며 항상 애수에 젖어 있었다.

그는 군인으로 예전에 줄곧 외국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유럽, 아프리카에서 지낸 적이 있으며 결혼을 하려면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체되었다면서 최근에는 반려자가 없어 매우 외로움을 느껴 온화하고 자상한 아가씨를 찾아 그녀에게 집을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록 그는 많은 외국 여성들을 알고 지내긴 했지만 그들과 결혼을 할 수는 없었다. 외국 여자들은 「조삼모사(朝三暮四)하고 매우 현실적이어서 혹시 그가 병이라도 걸리면 전혀 보살펴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타이완 여자들도 이렇게 하기엔 쉽지 않다며 예전에는 군인에게 시집가는 것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아주 번거로워한다.」면서 중국 본토 사람을 결혼 상대로 찾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마작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사교댄스도 안 춘다며 취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혼자 아주 큰 집에서 사는데 굉장히 외롭다고 말했다.

‘분별없이 너무 많은 말을 했네요. 실례가 되었나요?’라고 그가 물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원도 안 되어 보이지 않냐면서 자신과 어울릴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을 표현하고선 고민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는 「그건 단정 지을 수 없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어울리죠.」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있었는데 왜 도리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싶어진 건지 물었다. 그는 며칠 전에 룡총(榮總)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결혼하지 않는 게 몸에 좋지 않다며 결혼을 권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그를 검사했던 간호사가 스무 살이 넘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계속 자신을 바라보는 게 맘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간호사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냐고 물으면서 어찌면 간호사가 그저 호기심에 훑어본 것이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즉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여자들은 사람을 볼 때 눈으로도 말한다.」고 답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뭐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주팔자가 장제스(蔣介石) 전 대통령과 같으며 앞머리가 크고 이마가 높은 기이한 외모라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 장쑤(江蘇)에서 관상을 본 적이 있는데 자신에게 업적을 이룬다며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래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일생 동안 나쁜 일을 만나도 좋게 변한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역운이 있다고 했는데 점쟁이 말대로 2년 후인 그가 8살이 되던 해에 시후(西湖)에서 놀다가 쌍둥이 동생이 물에 빠졌는데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실 동생뿐이 아니었다. 아직 만나 보지도 못한 약혼녀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직도 그녀에게 진 빚을 갚으면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기도 했지만 결혼할 수 없었고 40여 년을 고통의 세월 속에서 보냈다고 했다.

사건은 1949년, 국군이 상해에서 철수하자 그는 먼저 타이완으로 건너왔고 약혼녀는 표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다음 배에 몸을 실었다. 그가 지룽(基隆)에 먼저 도착하여 그녀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배가 바다에 침몰하여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상해 사람이었고 사진 속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으며 그의 어머니가 중매를 서서 약혼을 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중앙은행에서 일을 했었고 배게 자수를 할 줄 알았다면서 그때의 이별로 그는 두 달 동안이나 실어증을 앓게 되어 타이완대학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찍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자 했으나 모두들 만류하였고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상실감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녀 젊은 시절부터 결혼을 회피한 것이었다.

후에 그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추천되어 가게 되었고 2등으로 졸업했다. 외국은 사회 풍조가 개방적이어서 외국 여성들과 동거를 했지만 그는 그 여성들이 사랑은 없고 오로지 신체적인 쾌락만 추구한다고 느꼈다. 프랑스에 있었을 당시 베르사유 숲에서 여성들이 자주 아무것도 입지 않고 가죽 코트만 하나 걸친 채 길가에 앉아 대상을 물색하는데 사람들은 그 여성들과 인사하거나 통성명할 필요도 없이 같이 놀거나 심지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파리에서 7년 동안 살았다는 것과 그가 알고 있는 베르사유

숲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망설였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가? 난 다시 생각했다. ‘무엇이 중요한 걸까? 그는 나를 이해하는 일보다 이 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것에 더 흥미를 보이는 듯 했고 심지어 나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에게 내 자신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가?’

그는 나의 망설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는데 바로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며 그 역시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얻지 못하는 것일수록 더 원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쉽게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랐고 집도 이렇게 큰데 왜 결혼은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이제껏 결혼 상대란 걸 못 만나신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결혼 상대는 당연히 있었죠. 예전에 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야 그녀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를 사랑했기에 출국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고 대신 빚도 갚아 주었지만 그녀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었고 후에 외국에서 가정을 꾸렸어요.’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 국내에서 유명한 장군께서도 그를 위해 증매를 서 주었는데 바로 자신의 누님을 그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었다. 그 장군의 누님은 마흔이 넘었고 이혼 경력이 있었으며 담배 피고 마작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는 나들이 가거나 드라이브 가는 것을 좋아해서 서로 간의 취미가 전혀 달랐다. 그는 마작 하는 아내를 맞이한다면 삼사일이 되도록 마작 하느라 집에 돌아오지 않을 텐데 혼자서 잠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대놓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장성(將星)의 가정사에 관한 소문을 얘기했다…….

나는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평범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을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생활이나 생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나도 평범하고 자질구레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 스물여섯 번째 남자

『그는 분명 나의 차림이 너무 이상해서 나와 알고 지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사업적 의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한 유명한 주점에서 지배인을 했었는데 최근에 창업을 했고 동생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어머니 한 분만 모시면 된다고 했다.

그가 밖에서 만나는 건 어떻게냐고 물었다.

우리는 2시 30분에 즈팅루(紫藤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후 2시 45분,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땐 그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상냥하고 예의바른 종업원은 그가 가게에서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고는 얼마 되지 않아 나가 버렸다고 말했다.

나는 15분 늦었다.

차집을 나오니 공사 중인 신성난루(新生南路)는 어둡고 흐릿했다. 남자 몇몇이 치로우에 서 있었는데 모두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나는 어느 분이 사업적 의욕이 강한 분인지 알아 볼 수가 없었지만 그가 분명 이들 가운데 한 명일 거라고 추측했고 나는 그가 훑쳐보는 대상이 되어 버렸다. 어쨌든 그는 먼저 나의 외모를 보고 나서 나와 만날 지를 결정하려 했을 수도 있겠다. 나는 길가에 서서 왜 그가 나와 약속을 잡은 것인지? 또 왜 바로 자리를 뜬 것인지? 추측해 보았다.

나는 화려한 색의 바바리코드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내 자신을 닮았다. 어쨌든 그는 아래층에 있던 남자인데 나의 차림이 너무 이상해서 나와 알고 지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이지 자책할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른 후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6시 15분, 그에게서 전화가 왔고 나는 한마디 했다. ‘겨우 15분 늦었을 뿐인데가 버리셨더라고요.’ 그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오래 기다릴 수 없었다고 해명하

고는 급히 전화를 끊어 버렸다.

나는 의외였다. 그리고 기분도 썩 좋진 않았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 스물일곱 번째 남자

『나는 그를 대신해서 광고 글을 썼다.

‘남자, 스물다섯.

점잖고 애타심 있음.

활발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 친구 구함.

나이는 상관없음.’』

그는 자신이 말주변이 없으며 친구가 없고 직업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아주 내향적이며 게다가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제대한 지 1년이 지났으며 일자리를 찾아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에게 일하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그는 그냥 집에 딸린 상점을 도와주는 것이 좋았다.

그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라고 물었다.

나는 ‘그래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답했는데 그는 그저 친구를 찾고 싶은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친구를 찾고 싶다면 여자 친구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는 아직까지 여자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직업여성을 찾아본 적은 있나요?’라고 입 밖으로 나오는 대로 물었는데 그는 「한 번 찾은 적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의 누나가 그에게 이렇게 컸는데 슛총각은 안 된다면서 이발소에 데려 갔는데

그곳에서 2천 위안을 썼다고 했다. ‘only one (once) 딱 한 번이요.’라고 그가 말했다.

후에 그는 다시 말을 바꿔 ‘사실은 단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아니요. 총 세 번이예요. 자오시(礁溪) 온천 목욕에 갔어요.’라고 말하고선 그곳은 가격도 싼 편이며 6백 위안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업여성은 「몸매는 좋은데 얼굴은 평범했으며」 먼저 그와 대화를 나눈 후에 「손으로 해주고 다시 그걸로 해 주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다시 자오시(礁溪)의 그 여자를 꼭 찾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온몸을 떨었다.

나는 ‘어쩌면 꼭 다시 가서 그녀를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원하지만 당신은 그저 여자 친구를 사귀고 싶은 것 「뿐이니까요.」’라고 말했다.

그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라고 내게 묻자 나는 그에게 신문에 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기에 나는 그에게 신문에 내는 방법을 알려 주었고 또 문안(文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나는 그의 특징에 대해 물어보았고 그는 자신이 아주 짐작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나는 그를 대신해서 광고 글을 썼다.

‘남자, 스물다섯.

점잖고 애타심 있음.

활발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 친구 구함.

나이는 상관없음.’

며칠 후에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와서는 광고 글을 냈지만 전화 온 사람은 그저 쉼이 넘은 과부 한 명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어떡하죠?’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다시 누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라고 내가 말했다.



## 스물여덟 번째 남자

『나는 궁금해서 ‘나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라고 그를 떠봤다. 그는 ‘동거는 가능하세요?’라며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했다.』

그는 자신을 안웨이(安徽)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나는 그것을 ‘남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알아들었다.<sup>17)</sup> 그의 나이는 마흔쯤 되었으며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나이, 신장, 체중을 물어보았고 (대다수의 공개 구혼자와 같았다.) 취미가 있는지도 물었다.

내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자 그는 ‘서양 영화요? 아님 국내 영화요?’라고 물었고 나는 재미있기만 하면 가리지 않고 다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영화는 좋아하지 않고 서양 영화만 본다고 했다. 예전에 어떤 이가 그에게 허우샤오시엔<sup>18)</sup>의 《연연풍진(戀戀風塵)》과 《비정성시(悲情城市)》를 권해서 봤지만 모두 우울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는 텔레비전을 가장 자주 봤다.

친구는 네다섯 명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으며 사람을 가리면서 사귀었다고 했다. 여자 친구는 한 번 사귀어 본 적이 있는데 그녀는 홍콩에 가서 일한 지 3년이 되었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계속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후에 그녀는 그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전화를 걸어 와서는 하소연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른 살이 넘은 그녀는 춤추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는 몸치인데다 말주변도 없어서 그녀가 싫어했고 그리고 그녀는 춤 출 줄 아는 남자를 원했다. 후에 그녀와 결혼한 남자는 춤을 좋아하고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둘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함께 지내는데

17) ‘안웨이 사람(安徽人)’의 중국어 독음 ‘ān huī rén (안웨이런)’과 ‘남아프리카 사람(南非人)’의 중국어 독음 ‘nán fēi rén (난페이런)’이 발음이 유사해서 생긴 오해이다.

18) 허우 샤오시엔(侯孝賢): 타이완 영화감독이다. 제49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비정성시(悲情城市)》가 있다.

어려움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도 신혼여행조차 가지 않았고 춤추려는 더더욱 가지 않았다.

서른이 넘은 그녀는 로맨틱한 남성을 찾고 있는데 그는 로맨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이 가장 로맨틱하다면서 본인이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저 안타가운 것은 그녀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결혼하고 싶어서 선도 많이 봤고 동료들이 소개도 많이 해 주었다고 말했다. 서른네 살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지나치게 착했다면서 그녀는 정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이제껏 저녁 10시 이후에 귀가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착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서른넷이나 먹었는데 「여자아이」라고 부르나요? 여성이라고 부르셔야죠!’라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내가 너무 재미있다면서 「자주 연락해요!»라고 말하고선 자신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똑똑한 「여성」을 좋아한다며 이왕이면 대학 나온 여성이 더 좋다고 말했다.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상고를 중퇴했거든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가 말을 바꿔서 ‘그것도 좋아요. 전문적이잖아요!’라고 말할 줄을…….

그는 몇 번이나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자들이 모두 자신한테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까다롭게 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여자들이란 대부분 도서관이나 은행에서 만나서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었다.

그는 나에게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내가 신중하고 생각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그는 「자오닝(趙寧)<sup>19)</sup> 같은 사람인가요?’ 하고 물었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아니면, 리아오(李敖)<sup>20)</sup>?’ 라고 물었고 나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아주 귀여우시네요.」, 「저는 정말 당신과 같은 성격의 여성을 좋아합

19) 자오닝(趙寧): 타이완의 유명한 작가이다.

20) 리아오(李敖): 타이완의 유명한 작가이다.

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래요?’라고 말하고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계속 그의 말에 따지를 걸고 있지는 않는가?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그에게 보여준 그 사람인 건가? 내가 표현한 그 사람은 또 진짜 나인가?’

나는 궁금해서 ‘나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라고 그를 떠봤다. 그는 ‘동거는 가능하세요?’라며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 스물아홉 번째 남자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라며 그는 전화를 끊어 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어눌했고 그와 내가 나눈 대화는 단 일곱 마디였다.

「결혼 정보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참가해야 되나요?」

「지금 참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남자 친구 사귀고 싶나요?」

「아니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라며 그는 전화를 끊어 버렸다.

## 서른 번째 남자

『감사합니다.』

그와 내가 나눈 대화는 더 짧았고 세 마디도 채 되지 않았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른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른한 번째 남자

『나는 그에게 겨우 스물두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공개 구혼을 하려는 건지 몰랐다. 그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죠 뭐’라고 답했다.』

그는 홍콩에서 온 화교 학생으로 올해 스물두 살이며 현재 5년제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겨우 스물두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공개 구혼을 하려는 건지 몰랐다. 그는 모르겠다면서 그냥 시간도 때우고 특이한 사람들도 만나 보려 한다고 했다.

그는 완팡(萬芳) 지구에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봐주는데 너무 지루해서 전화를 걸었다면서 그가 공부하는 이공전문학교에서는 오늘 장제스(蔣介石) 추모 등산 행사 등을 개최했는데 그는 동갑 여학생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가기 싫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아서 여자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전에 홍콩에서 한 여성을 알고 지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떠났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했다. 또 그는 홍콩 여자들은 김치녀<sup>21)</sup> 기질이 있어서 것처럼 돈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리 없을 거라고 했다. 그는 타이완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타이완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다.

그는 타이완에 있는 6개월 동안 견문을 넓히게 되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

---

21) 김치녀: 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여성 혹은 돈을 목적으로 이성 교제를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은어이다.

이브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홍콩 반환 날<sup>22)</sup>이 다가오자 부모님은 홍콩에 남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타이완에 살고 싶다고 했다.

그가 말했다.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요. 저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원한다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가 되지 않았다.

## 서른두 번째 남자

『그는 알프레드 아들러<sup>23)</sup>의 이론은 그가 생명의 본질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으며 더욱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 주었지만 그의 친구들 모두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비교적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소통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키가 크지 않은 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는 미혼이며 아마도 자신이 너무 촌스럽기 때문에 미혼인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깊이 사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가 진전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현대 여성들은 모두 외적인 부분을 중시해서 맞선을 여러 번 보았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혼 정보 회사에 간 적도 있는데 그곳 직원들이 소개시켜준 여성들은 언제나 그의 맘에 들지 않았거나 상대측 여성들이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또 더욱 낭패인 것은 키도 크고 체구가 좋은 남자들도 아담하고 깔끔한 여성들을 원하고 있어 「우리의 결혼 상대들을 다 빼앗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화리엔(花蓮) 사람이었다. 몇 년 전에 지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 한 여성을 알고 지냈지만 그가 타이베이로 전근가게 되었는데 그 여성

22)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국에 주권이 이양되어 반환되었다.

23)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 2. 7. ~ 1937. 5. 28. 오스트리아의 정신 의학자이자 심리 학자이다.

은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 당시 그는 겨우 스물네 살밖에 되지 않아서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하여 인연은 다 놓쳐버렸고 그 여성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아이들도 많이 낳았다고 했다.

‘뭘 어찌겠어요?’

나는 그가 말하는 어투가 한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낼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왜 다시 지방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다시 가게 되더라도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면서 지방 사람들은 공무원을 좋게 보는데 어찌면 돌아가야만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지방 사람들이 비교적 순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화리엔(花蓮)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낮에는 타이베이에서와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밤이 되면 할 일이 없었다. 나는 ‘타이베이도 마찬가지로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타이베이에서는 영화도 볼 수 있고 국립극장에서 팬터마임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견문을 넓히는 것 역시 그가 애초에 타이베이에 온 목적이었다.

그는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신조(新潮) 문고의 책을 자주 읽는데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바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이란 무엇인가?》<sup>24)</sup>라고 했다. 그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은 그가 생명의 본질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으며 더욱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지만 그의 친구들 모두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비교적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소통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술을 못하고 놀 줄도 몰라서 친구가 거의 없으면서 교사로서의 삶 이외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술·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자신이 좋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로운 날들이 너무 길어져서 꿈이 점점 깨져 버렸다고 하며 자신이 이미 서른여섯인데 언제쯤이면 마음이 통하는 반려자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신만의 근심과 아픔이 있으며 혼자만의 삶에도

---

24) 원제: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가끔은 즐거운 순간이 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고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나는 마치 내 자신을 위로하듯이 그를 위로했다. 한참 얘기하고 나니 더 이상 통화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다.

## 서른세 번째 남자

『공개 구혼하는 사람은 어때야 하는 걸까? 뭘 해야 되는 걸까? 그는 왜 내가 진정으로 공개 구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그는 본인이 마르고 키가 크다고 말하고선 생김새는 중화방송(華視·CTS) 아나운서 시성린(奚聖林)을 닮았다고 했다.

그는 나의 첫 마디를 듣고는 느낌이 왔다며 더군다나 내가 대륙 사람이여서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출신 지역을 매우 따진다.」고 했다. 그는 담배를 피며 미디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삶의 질을 아주 중시한다고 했다. 문학·예술영화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sup>25)</sup>를 아주 여러 번 보았다고 했다.

그가 여러 차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오자 그에게 왜 집에서 전화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는 지금 어머니께서 주식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군인이시고 그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시먼딩(西門町)<sup>26)</sup>에서 좀 놀아서 「칭핑구어<sup>27)</sup>」와 「조폭」에 대해 잘 아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알고서도 계속 아무 말씀 없으셨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어느 날 저녁,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께서 손으로 그를 한 대 때리면서 ‘사람이 특히 남자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알보인다면 한평생 끝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은 그의 삶에 영향을

25) 원제: 《Gone with the Wind》

26) 시먼딩(西門町):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번화가이다.

27) 칭핑구어: 70년대 시먼딩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당시 청소년들이 나쁜 친구들을 사귀거나 탈선하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주었다. 또 한 번은 그가 병역에 복무할 당시 남부로 내려가는데 아버지께서 그가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 주머니에 3천 위안을 넣어 주셨다. 그는 매우 감동하여 거의 울 뻔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는 교양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어렸을 적에 쥐엔춘(眷村)에서 자랐는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욕하시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세요?’라고 물었다.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말을 끊고서 ‘공개 구혼은 재미삼아 하는 거죠? 때가 되면 전화 번호도 바꾸고 찾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다.

그는 헤어진 지 1년 넘은 전 여자 친구 얘기를 꺼냈다. 그녀는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감정 기복이 매우 심했고 어리광도 너무 많았다. 그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껴 잘 대해 주었지만 그녀는 히스테리를 너무 많이 부렸다. 그리고 그의 업무가 가장 바쁠 때에 전화를 걸어 자기를 찾으러 오라고 한다거나 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했다. 이번의 연애가 「순탄치 못해서」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는 그녀와 연락하지 않길 원했다.

「당신도 히스테리가 있나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가 ‘어떤 상황인데요?’라고 묻자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가 또 화제를 바꾸고서는 다시 내게 원래부터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한참을 침묵했고 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크리스마스 날 타이둥(臺東) 일대에 놀러 가자고 했지만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또 전화를 해서는 「사람 마음이 악(惡)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방금 신문을 봤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긴장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았다. 누군가 그에게 나의 성이 우(吳) 씨가 아니라고 알려 줘서 나를 비난하려고 전화했다고 오해했다. 알고 보니 사실은 그가 신문에서 경고문을 봤는데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돈을 갖고 튀었다면서 「그래서 당신은 저를 속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전화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하지 않았다。」면서 「자꾸 속아서 속는 것이 두렵다」며



이 사회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의 이 말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그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공개 구혼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로 공개 구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저만의 생각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아직 많아요. 저는 아직 제 마음을 당신한테만 두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내 말을 듣더니 공손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일이 있는 지 두 달 후, 나는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그를 보게 되었다. 나는 그 사람이 분명 그인 걸 알았지만 자신 있게 인사를 건넬 순 없었고 마치 인사를 하면 안 될 것만 같았다. 어쩌면 그는 그가 예전에 나와 공개 구혼을 논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걸 영원히 원치 않을 지도 모른다.

‘공개 구혼하는 사람은 어때야 하는 걸까? 뭘 해야 되는 걸까? 그는 왜 내가 진정으로 공개 구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점들이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 서른네 번째 남자

『그는 딱히 할 일이 없었기에 나에게 연락했다면서 ‘결혼을 원해요? 좋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결혼할 수 있는데 서로 맞지 않으면 바로 이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발이었으며 걱정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막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타이완이 너무나 많이 변해서 잠시 적응하지 못했고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매일 부동산 중개소와 다툼이 생겨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딱히 할 일이 없었기에 나에게 연락했다면서 ‘결혼을 원해요? 좋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결혼할 수 있는데 서로 맞지 않으면 바로 이혼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결혼이 그렇게 쉽다면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빨리 구혼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제가 직업여성이라면요?’라고 내가 물었다. 그는 만약에 「순결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할 바에야 「놀았던」 여자를 맞이하는 게 낫다면서 ‘다다’를 얻을지언정 아내를 ‘다다’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왜 ‘다다’라고 부르는지 물었고 그는 바로 Whore라면서 윤락녀를 의미한다고 했다.

내가 ‘이러한 결혼관을 부모님께서 받아드리실 수 있나요?’라고 묻자 그는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누가 결혼하는데 자신을 직업여성이라고 말하겠어요?’, ‘타이완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 결혼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라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예전에 외국 여성과의 결혼을 계획했었고 가족들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고 상대는 이미 새 애인과 결혼을 했다고 했다.

타이완으로 돌아 온 지 6개월이 넘으니 그는 타이완 여자들이 점점 단순하지 않고 예전보다 더 물질화되고 돈을 중시하며 「특수 영업이 도처에 널려 있어 미성년자 소녀들이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현상이 사회 풍조로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녀들을 탓하지는 않았다. 직업여성, 직업여성들도 사람이고 그는 그녀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예전에 데이트 중개소의 소개로 항공 회사 여직원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7천 위안이었다. 그는 그 여성이 아주 맘에 들었고 계속해서 다시 그녀를 찾고 싶었지만 애석하게도 전화가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데이트 중개소에서는 또 다른 여가수 한 명을 추천해 줬지만 2만 위안으로 비교적 비싼 편이어서 그는 값어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남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무역업에 종사했는데 그곳의 중국인들이 너무나 눈에 거슬려서 타이완으로 돌아왔지만 타이완에서의 많은 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총통, 하오보춘(郝柏村)<sup>28</sup>, 자오샤오강(趙少康)<sup>29</sup> 등 많은 사

28) 하오보춘(郝柏村): (1919. 8. 8. ~ ) 중국 국민당 중앙 평의 위원회 주석단 주석이다.

29) 자오샤오강(趙少康): (1950. 11. 16. ~ ) 중국 방송회사 (BCC) 이사장 겸 총 책임자이며 언론인이다.

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신의 견해를 숨김없이 모두 밝히며 이 사회를 개선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그는 리덩후이(李登輝)<sup>30</sup>에게 3통의 편지를 썼는데 6개월 동안 그가 관찰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모두 적어 보냈다. 결과적으로 총통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그의 편지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관련된 각 부서에 전달해 참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오보춘(郝柏村)에게 쓴 편지에는 타이완의 각종 유흥업소에서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함부로 술을 판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21세 이하의 청소년은 술집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오보춘(郝柏村)의 회신에는 행정원에서 이미 전국 경찰기관에 청소년 술집 출입이라는 악습을 제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적혀 있었다.

하오보춘(郝柏村)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장발 허가 규정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여학생들이 바가지머리 같은 헤어스타일을 해야 강간 사건을 근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에 대해서 하오보춘(郝柏村) 선생께서는 회신을 하지 않았다.

자오샤오강(趙少康)에게 보낸 편지에는 공무원 봉급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의 공신력을 높이려면 우선 공무원의 권리와 봉급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쉽게 이직하거나 정부 기관의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서민들이 행복하지 않게 된다고 직언했다.

당시 아직 환보서(環保署)에 취임되지 않은 자오샤오강(趙少康) 선생 역시도 회신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아주 바빴을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의 말을 흥미진진하게 들어줘서 내게 호기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나와 결혼을 고려하고 있고 사랑이 필요하다며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매번 상처를 입는 쪽은 왜 항상 본인이나면서 ‘저랑 결혼 하실래요?’라고 물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하시는 거 같네요.’ 라고 말했고 그는 「어쩌면요!」 라고 답했다.

30) 리덩후이(李登輝): (1923. 1. 15. ~ ) 타이완의 제7, 8, 9대 총통을 역임한 정치가이다.

## 서른다섯 번째 남자

『그가 원하는 결혼 상대의 조건은 많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여자면 되고 두 번째는 살아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동 응답기에 두 구절의 시를 남겨 놓았다. ‘일찍이 바다를 보고나니 냇물은 물같이 여겨지지 않고 무산(巫山)에서 이는 구름이 아니면 구름같지가 않더라.’<sup>31)</sup>

그는 이 두 구절의 시가 자신의 심정을 묘사한 것이라면서 나와 대화를 나누니 아주 긴장되지만 어쩔 수 없으면서 여자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가 몇 마디 해도 그에게 응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음을 쥐도 소용이 없으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주 못생겨서 감히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저 일개 공장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결혼 상대의 조건은 많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여자면 되고 두 번째는 살아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결혼 상대 조건이 그보다 한 개 더 많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하나가 바로 ‘유머’라고 말했다. ‘유머? 어떤 유머 코드요?’라고 그가 물었다. 나는 웃어버렸고 그는 또 왜 웃는지 물었다.

‘정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여자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성 친구조차도 없어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는 그저 이해(利害) 관계만 있네요.’ 그의 불평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가 친구가 없는 것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의향이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줬는데도 받아 주지 않더군요.’라며 그가 말했다.

31) 원진(元稹)의 시(詩) 《이사(離思)》 중, 曾經滄海難爲水(중경창해난위수) 除却巫山不是雲(제각무산불시운)

## 서른여섯 번째 남자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며 전화 건 이유는 나를 알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아마도 감정적 학대를 심하게 받은 사람이라 생각되어 위로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고 했다. 또 마침 집에 혼자 있고 무료하기도 해서 나와 얘기나 좀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기만 한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조폭이라면서 소위 말하는 좀 노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이십 대이고 미혼이며 집이 없어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다. 누나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정계에 몸담고 있는 삼촌도 계시지만 이제껏 그들에게 어떠한 일도 부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주 아득한데 그저 일본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서 사진 속 기모노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아버지는 빈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사랑이란 걸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랑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며 전화 건 이유는 나를 알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아마도 감정적 학대를 심하게 받은 사람이라 생각되어 위로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고 했다. 또 마침 집에 혼자 있고 무료하기도 해서 나와 얘기나 좀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직업여성에게 스폰을 받고 있고 여자 친구의 질투가 심하다며 여자 친구는 매일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구김이 가지는 않았는지 검사한다고 했다. 그는 성숙한 여자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모든 여성이 자신의 눈엔 예뻐 보인다고 말했다. 어쨌든 그는 여자를 좋아하고 외로움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빈랑<sup>32)</sup>을 먹기 시작했으며 중학교 1학년 때 여자

---

32) 빈랑(betel palm): 외떡잎 식물 종려목 야자나무과의 교목으로 각성 효과와 환각 성분이 있다.

와 잤고 열여덟 살이 되던 해에는 남창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남자를 모시면 하룻밤에 2만 위안을 벌 수 있는데 옷을 벗자마자 건딜 수가 없어서 바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했다.

후에 그는 킬러가 되어 도박장에서 보디가드로 일했다. 그는 본인이 잔인하기도 하고 온화하기도 하다면서 성격이 극단적이어서 누군가 그에게 1만큼 잘해주면 그는 10만큼 잘해주며 그 반대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킬러는 사람과 굶주린 세퍼드를 같이 가둬 놓는 식의 훈련이 필요한데 사람이 피를 볼 때까지 훈련하면 발광하게 된다면서 그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고양이를 무참히 학대하여 죽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곳만의 법칙이 있다며 바로 네 종류 사람인 여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은 건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와 원한을 갖게 되더라도 그는 절대 직접 손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전에 한 점쟁이가 그와 같은 팔자는 아주 좋거나 아주 안 좋은 운명이라 했는데 그의 친구는 오히려 그는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기에 한번 살아보기로 했지만 너무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오래 살면 재미도 없고 좀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스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혼할 수가 없지만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나에게 사교댄스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전문가라면서 전문적으로 돈 많은 아줌마들을 가르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로움을 매우 두려워한다며 때때로 한밤중에 슬픔이 밀려와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 귀신을 보기 때문에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바로 이야기를 끝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 여자가 돌아왔네요. 전화를 끊어야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서른여섯 번째 이 남자,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우리는 일평생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를 한 것이었다. 어쩌면 유일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익숙한 느낌을 받았고 그가 나에게 남긴 깊은 인상을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 서른일곱 번째 남자

『그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젊었을 때는 노는 걸 좋아해 결혼 생각이 없어서 좋은 인연을 놓쳤고 나이가 좀 들어서 는 누군가와 교체 전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 더 이상 사랑에 의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서른여섯 살인 그는 미혼이었다. 이 일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

그는 ‘만약에 한 사람이 예전에 벤츠(Benz)를 몰고 다녔는데 후에 어떻게 유론 자동차(Yulon Motor)<sup>33</sup>를 모는 것이 가능할까요?’라고 비유를 했다. 예전에 여러 명의 여자 친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시집가 버리고 결혼 후에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서 그도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 상대가 전 여자 친구들 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젊었을 때는 노는 걸 좋아해 결혼 생각이 없어서 좋은 인연을 놓쳤고 나이가 좀 들어서 는 누군가와 교체 전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 더 이상 사랑에 의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는 로맨티스트이며 절대적인 완벽을 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겉모습을 보고 그가 바람둥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실 그는 사랑에 대해 진지해서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윤리적인 것, 재산 모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이미 옛날 일이 되어 버렸다. 예전에 사랑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그를 죽도록 사랑했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 생에는 여한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왜 공개 구혼을 하는 건지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는 ‘임신했나요? 아니면 너무 급해서 아무나 되는대로 잡으려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나는 ‘임신도 아니고 아무나 잡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결혼하고

---

33) 유론자동차(Yulon Motor): 타이완 자동차 전문 제조업체 중 하나이다.

싫은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내가 참 모호한 여자라면서 나에게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은 모험이라면서 어떻게 갑작스레 결정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서른여덟 번째 남자

*『우리가 만난 후에 그는 나의 외모가 평범하고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약간 불쾌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나도 그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상품이라면서 만약에 사고 싶지 않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선 두 개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화가 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성격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정환경은 좋진 않지만 명석한 두뇌와 출중한 외모 그리고 여자복이 많아서 「대담하게」 공개 구혼에 응했다고 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나와 공개 구혼을 했던 그의 친구 얘기를 듣고 자신이 나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되어 얼른 나에게 연락을 했고 그의 친구는 이미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은 함정이라며 자신은 예전에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주식시장에 막 발을 들여놓자마자 주식이 대폭락하였고 마침 그해의 운세도 좋지 않아서 아주 불만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신이 주식거래 경험도 많지 않고 교활하거나 간사하지도 않아서 돈도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손해만 보았는데 최근에 결혼금이 20만 위안이라고 했다. 하



지만 그는 낙관적이어서 사람은 멀리 봐야 한다며 만약에 내가 결혼하려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밖에서 떠돌아다니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성숙해졌고 식견도 생겼다고 말했다. 점쟁이가 서른두 살에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내년이 바로 그해이며 올해는 파산하고 큰돈이 새나갈 수도 있으니 안태세(安太歲)<sup>34</sup>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찾고자하는 결혼 상대는 커리어우먼은 아니고 여자가 너무 일을 잘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어쨌든 한 집안에는 안주인과 바깥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외모를 많이 보시나요?’라고 묻자, 나는 ‘어쨌면요.’, ‘그쪽은 외모는 상관 없으신가요?’라고 되물었다.

우리가 만난 후에 그는 나의 외모가 평범하고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약간 불쾌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나도 그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충칭베이루(重慶北路)의 길가에서 만났다. 나는 그에게 명화원(明華園)<sup>35</sup>에서 하는 가자희(歌仔戲)<sup>36</sup> 노천 공연인 《진명천자(眞命天子)》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그는 명화원이 뭐하는 데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어렸을 적부터 가자희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매우 놀랐다. ‘가자희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 오락 활동 아닌가요?’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그것에 흥미가 없다면 어렸을 적부터 도시를 동경해서 가자희를 보는 것은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자희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나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더 놀랐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했다.

설날이 머지않은 안개비 내리던 그날, 우리는 우산 없이 시끄러운 무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닭 날개와 오징어 구이를 사 가지고 와서는 먹고 싶지 않다

34) 안태세(安太歲): 중국 한족의 민간신앙으로 액땜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35) 명화원(明華園): 타이완의 유명한 전통극 공연 단체이다.

36) 가자희(歌仔戲): 타이완의 전통극이다. 구미권에서는 흔히 ‘타이완 오페라’라고 불리며 대사는 타이완어로 되어 있으며 배우들은 전원 여성이다. 타이완 문화의 상징 중 하나이다.

고 하는 내게 계속 먹으라고 권했다. 나는 시선을 무대 위 공연에만 주목했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전화 통화 때보다 더 싫어지고 있어! 왜지?’

그는 전부터 수차례 나에게 만나자고 했었다. 증권회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는 그곳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증권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그를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해주었는데 바로 3번 창구를 찾아서 ‘저기요, 제가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요.’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나인지 알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둘만의 암호라고 했다. 나는 이 아이디어와 암호가 괜찮다고 생각했다. 대도시 타이베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증권회사에서 내가 암호를 말하기만 하면 한 남자가 나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나는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암호로 그를 찾아냈다면 아마도 그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 애석하게도 내 자신이 암호의 마력을 없애 버렸다. 그리고 그는 상품도 아니고 이 일은 더욱더 거래도 아닌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이런 사실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

## 서른아홉 번째 남자

『그는 계속해서 3분 무료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나도 반대하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자신을 판매하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영어를 들었을 뿐이었다. *trouble, surprise, business, good night…….*』

「당신은 작가인가요?」

우리가 대화를 나눈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진실을 말해 달라고 했다.

나는 ‘저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저 글 쓰는 걸 좋아할 뿐이죠.’라고 답했다. (이건 사실이다.) 그는 나의 말을 듣고는 더욱더 내가 작가라고 확신했는데 나와 이야기 나눈 지 1분 만에 내가 상당히 똑똑하고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이해해서 작가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작가는 공개 구혼하면 안 되나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안될 거야 없죠.」

그가 나에게 첫 번째 전화를 건 장소는 삼중(三重)의 한 세븐일레븐 앞이었고 공장을 함께 방문할 외국인 고객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3분 무료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나도 반대하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자신을 판매하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영어를 들었을 뿐이었다. trouble, surprise, business, good night…….

서른여섯인 그는 미혼이었다. 스스로 자신의 조건이 괜찮은 편이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한 때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지만 현재 무역 회사를 경영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업하기 힘들다면서 타이완달러도 올라 버리고 게다가 지금 자신이 「개미 새끼 하나 볼 수 없는 거리」에서 1시간 반이나 외국 고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전에 한 때 안 좋았던 과거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에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최근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6개월 동안 해외로 나가 많은 동남아 국가를 돌아다니며 기분 전환 하고나니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같이 못된 남자들을 알긴 하나요? 왜 공개 구혼을 하려는 건가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무료하기도 하고 인생이 재미도 없고 해서 나처럼 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와 통화를 한 다음 날, 나는 일이 있어서 타이난(臺南)으로 가게 되었고 신잉(新營)의 작은 여관에서 묵기로 했다. 자정이 지나도록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세게 몇 번 두드린 후에 문을 열어젖혔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멍뚱멍뚱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옆에 한 꾸러미를 든 여성이 ‘방 검사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았다. 여관 밖에서는 기차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나는 누군가 여관에 와서 나에게 충을 겨눌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가 내게 물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모든 공개 구혼자들에게 드러내 보인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나는 점점 공개 구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도대체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내 자신이 아니라면 난 왜 또 남에게 들킬까 봐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들키는 것일까?

어느 날, 나는 한밤중에 서른아홉 번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에게 나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고 누군가 수시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난입할 것 같은 기분이어서 잠에 들 수가 없다고 하고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거실에서 자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시름 놓으며 ‘좋아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즉시 이 생각을 후회했는데 내 행동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우리 집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인터폰에 대고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했고 그도 그럼 그냥 돌아가겠다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나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나 역시도 내 마음 속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어쩌면 그가 말한 대로 내가 두려웠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 마흔 번째 남자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그가 흔드는 손을 보았다. 크지 않은 손바닥, 생명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그가 자신의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는 답띠였다. ‘답띠 해’가 이미 세 번 돌아와 서른여섯이 넘었으며 가전제품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고 성격은 솔직하며 잔소리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나는 정말이지 그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예전에 동거를 했을 때 동거녀의 잔소리를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외모는 지

나치게 평범했으며 키가 아주 작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키가 크지 않아서 늘씬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또한 2세를 위해서 키가 좀 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고 그의 어머니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나는 그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는 동거 전에 한 여성에게 16만 위안을 사기당한 적이 있는데 모델 같은 몸매를 소유한 그녀는 의류 전문점에서 남성복을 판매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로 아버지는 중풍이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남동생의 여자 친구가 사랑 때문에 자살을 해서 반드시 14만 위안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에게서 돈을 빌려갔지만 사실 그녀는 그 돈을 다른 남자친구에게 주었다.

그는 그녀를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말도 잘하고 이해심이 많아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모두들 어느정도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다. 그는 그녀에게 낚인 봉이었다. 그 역시도 체념했다. 그저 계속해서 그녀를 잊지 못하는 것이 그를 괴롭게 할 뿐이었다.

닭띠인 이 남자는 계속해서 그 늘씬한 여성을 얘기했고 심지어는 그녀와의 성생활까지도 생생하게 묘사해서 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다. 나는 그가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왜 나와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 또 왜 이러한 고민들을 나에게 말하는 것일까?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그가 흔드는 손을 보았다. 크지 않은 손바닥, 생명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그가 자신의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빙빙 돌며 날다가 지나가 버렸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결혼을 하려는 것일까?

나보다 키가 작고 닭띠인 이 남자는 계속해서 설 새 없이 떠돌고 있었다.

## 마흔한 번째 남자

『그가 친구를 대신해서 공개 구혼에 적극적으로 응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의 친구도 예외가 되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친구를 대신해서 공개 구혼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무나도 예의바른 어투였다.

그의 친구는 1950년 생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키는 176cm이며 방송학을 전공하였다. 현재는 기성복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의 동업자이기도 했다.

그는 그의 친구가 타이완 토박이이고 기독교 신자이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또한 그가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가 지나치게 착해서 실연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도조차 두려워하여 종교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그가 친구를 대신해서 공개 구혼에 적극적으로 응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의 친구도 예외가 되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행복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임마뉴엘!<sup>37)</sup>

## 마흔두 번째 남자

『그는 진정한 사랑은 전쟁이고 결국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패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과 사랑은 별개라고 생각했다. 또한 사랑도 바둑 두는 것과 비슷하다』

---

37) 임마뉴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원문에 나온 이매뉴엘(Emanuel/Immanuel)은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등장하는 인명 임마누엘에서 유래한다.

고 말했다.』

그는 타이베이 시립 건국 고등학교<sup>38)</sup>를 졸업했으며 현재 바둑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가 나에게 물은 첫마디였다. 그는 빨리 결혼을 하려고 맞선을 여러 번 보았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개 구혼 광고는 그의 바둑 친구가 발견해서 알려준 것인데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지만 다들 그에게 한번 해보라고 부추겼고 어찌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의 생활이 최근에 불안정했고 목적도 없었고 책임도 없었고 관여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공개 구혼을 거절할 만한 구실도 없었다. 그리고 접대 때문에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고주망태가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그의 바둑 실력은 크게 되보했다. 그는 현재 바둑 랭킹 4단으로 계속해서 바둑왕을 이길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은 전쟁이고 결국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패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과 사랑은 별개이며 모든 일은 바둑을 두는 흐름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랑도 바둑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포석	중반	마무리
명품으로 치장한다.	편지 쓰고 꽃다발 보낸다.	그냥 가 버린다.
예의를 지킨다.	애매하고 불확실하다.	상대방이 가 버린다.
열렬하게 사랑한다.	장애가 너무 많다.	1. 헤어지지 못한다. 2. 너는 상처입고 나는 죽는다.

38) 타이베이 시립 건국 고등학교(臺北市立建國高級中學): 점수가 가장 높고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로 유명 인사를 많이 배출한 학교이다.

신비감을 준다.	한발 물러서고 한발 다가간다.	1. 관계가 명확해진다. 2. 서로 물러난다.
----------	---------------------	------------------------------

쌍둥이자리인 그는 사랑을 「논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는 같은 동네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좋아했었는데 여학생의 학업이 매우 뒤떨어져서 그가 과외도 해 주었으며 여학생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남학생이 없다고 말하자 그가 여학생에게 영화를 보여 주겠다고 했다. 그해 초이튿날, 위다(育達) 상고에 다니는 그녀의 언니가 한 남학생과 놀러 나가자 여학생이 그의 집에 와서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고 그들은 시먼딩(西門町)에서 볼만한 영화를 찾지 못해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를 봤다.

영화를 다 본 후에 여학생은 그를 만나 주지 않았고 그 둘은 정말로 내일이 없게 되어 버렸다.

그는 여학생 어머니께서 그 둘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녀도 부모님 말씀을 따랐으며 또 그 당시 자신은 바둑에 빠져 있어서 대학교도 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녀는 송산(松山) 상고 야간부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개학 후에 그는 그녀를 찾으러 갔고 매일 저녁 10시 15분에 지하도 출구에서 여학생이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그녀에게 왜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냐고 묻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조차 없었다. 그저 같은 버스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제대하고 나서 그는 그녀와 커피 한 잔 하기로 했고 그때서야 그녀가 아주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말하는 스타일, 목소리가 아주 매력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계속해서 자신을 못 본 척 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이 없었고 그저 그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후에 여동생이 그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여성은 강간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편지할 때면 언제나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한번은 그 여성이 그에게 ‘오빠, 오빠를 좀 더 일찍 알지 못해서 양다리를 걸친 것이 안타까워요.’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홍콩인 회계사 남자 친구가 있었다. 한번은 그



와 그녀가 시용띠(兄弟)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녀는 홍콩인 남자 친구에게 자신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 홍콩인 남자는 그녀를 꽤나 사랑했나보다 후에 그녀는 결혼을 했다.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이 「끝난」 셈이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잘못된 바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 비행기 안에서 한 한국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타이완에 돌아온 후에 그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생각해 보고서 한국까지 쫓아갔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지방 여관에서 꽤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고 했다. 그 여성은 한문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이 보기라도 할까봐 그를 학교에 오지 못하게 했고 대신에 매일 수업이 끝난 후 5시 정각이 되면 여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는 10시가 되면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갔다. 그가 타이완으로 돌아가기로 한 전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에게 세 가지 물건을 주었는데 첫 번째는 넥타이, 두 번째는 양말, 세 번째는 사과 한 상자였다. 그는 왜 사과를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여관에서 그녀에게 줄 시를 썼다. ‘밝은 달이 나의 창문을 장식하고, 너는 나의 꿈을 빛내준다. (明月裝飾我的窓子, 妳裝飾我的夢)’ 그리고 타유시<sup>39)</sup>로 ‘자명종아, 달그락 소리 내지 마라, 그 소리에 나의 꿈이 놀라, 그녀 곁에 있지 못한다. (打起鬧鐘兒, 莫叫響叮噠, 響起驚吾夢, 不得到奴旁)’를 썼다고 했다.

귀국한 후에 그는 매일 그녀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그가 말이 너무 많은 점을 싫어했고 결국 그는 퇴짜 맞았다. 그는 그녀가 보수적이며 분위기가 있는 여자라면서 사실 자신이 왜 퇴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년 동안 그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되는 날이 많아졌고 기보(棋譜)를 연구하는 것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미혼이어서 동성연애자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교사인 아버지는 그의 혼사 문제에 대해 그보다 더 조금해 하셔서 자신이 가르쳤던 많은 미혼 여학생들을 그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했지만 그는 대부분 그저 한 번 만나 보고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이런 일에 직감적으로 판단하며 바둑 두는 것처럼 때로는 승패를 결정짓는 회심의 한 수를 두

39) 타유시(打油詩): 옛날 시체(詩體) 중에 하나로 내용과 시구가 통속·해악적이며 평측(平仄)과 운율(韻律)에 구애받지 않는다.

는 것 같았다.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또 그에게 선을 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여선생이었다. 그들은 신(新) 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선생이 약간 긴장하면서 ‘신 공원 입구가 얼마나 큰데 당신을 어떻게 찾아요.’라고 말하자 그는 그녀가 분명히 대범한 여성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역시 그는 자신과 그녀 사이에 유리벽이 존재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 그 둘은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갔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어떻게 해야 그녀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까하고 걱정했다.

나는 ‘타이베이에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있을까?’하고 생각했다. 이제껏 누구도 그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은 것이다. 그녀들은 꽃잎과도 같이 자신의 몸을 열어 주었지만 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말라 죽어 갔고 아무도 그녀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詩)가 떠올랐다.

우리가 알고 지내게 된 후, 그는 몇 번이나 한밤중에 술집에서 전화를 걸어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같이 이곳에 오자고 데이트 신청하지 않을 거라며 내가 그곳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에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였다. 어찌면 내가 궁금한 것은 술집이 아니고 그를 대신해서 과음하지 못하게 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바둑왕이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못 믿겠다. 그는 나를 초대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기원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일부러 그가 밖으로 술 마시러 나간 때를 틈타서 그의 기원에 들렀다. 한 대머리 중년 신사가 나를 바둑 배우러 온 사람으로 여기고는 앉아서 차 한 잔하라고 했고 그 신사는 서둘러서 몇몇 초등학생들에게 바둑 기술 수업을 했다. 나는 일본풍 방의 다다미 위에 앉았고 벽에는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가 서로 마주 서 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나는 어찌면 그가 이곳에서 《노자(老子)》 혹은 《손자(孫子)》를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고 생각했다. 그는 ‘쟁취하지 않는 것이 쟁취하는 것이다. (不爭謂之爭)’라며 조만간 바둑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는 바둑 둘 때 마음으로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상대를 작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상대와 바둑을 두는 것을 또 다른

초월적인 자아가 위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것은 얼마나 높은 경지인가!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을까? 나는 그가 매일 앉아 있는 기원 안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와 결혼하지 않았고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다.

<후기>

## 나는 남자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와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곳 맨 꼭대기 층 테라스에는 포도넝쿨 시렁을 놓아두고 많은 꽃과 나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공원에서나 봄직한 가로등이 켜지는데 매일 밤이 되면 저는 그 가로등을 바라봅니다.

그해 저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 생활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트에다가 제 자신을 위해 결혼 목표와 대상 정하기를 포함한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 방법들을 종합해 기록했고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상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저 역시도 더 이상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며 점점 더 결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창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형식과 관념은 저에게 있어서 절박한 문제가 되었고 저는 연극과 글에서 가능한 창작 방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오래된 테마인 ‘결혼’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신문 광고란에 관심이 있어서 흥미 가득한 호기심 어린 마음과 독학한 사회학의 관점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종류의 광고를 읽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신문에 광고를 낸다면 어찌면 누군가 나처럼 이 광고를 읽을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흥미와 호기심 어린 마음이 저를 한 발자국 나아가게 했습니다.

제 친구의 친구 중에 독일 여성이 한 명 있는데 그녀는 저와 마찬가지로 광고란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독일어 신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공개

구혼 광고를 보게 되었고 재미삼아 편지를 써서 공개 구혼에 응했는데 결과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아주 이상적인 결혼 상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얼마간 교제를 하고 나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예상치 못했던 일은 그 이상적인 결혼 상대가 결혼 전날 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가 영화에나 나올 만한 내용이란 걸 알고 있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공개 구혼 광고를 낸 것은 저의 또 다른 삶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으며 또한 평소에 절대 알고 지낼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이 도시에는 외로운 사람, 외로운 남자가 아주 많으며 저는 적어도 107명의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그 중에 42명과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남자, 그리고 남자의 외로움을 알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와 공개 구혼에 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평등한 관계였고 저는 모든 만남의 과정에 있어서 결코 거짓으로 그 어떤 누구의 감정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역시나 제가 공개 구혼 과정에서 보였던 실제 반응입니다.

제가 공개 구혼을 하게 된 계기는 저의 창작 계기와 마찬가지로 하나 안에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평범한 여자이고 한 여성으로서 자아실현이 결혼생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는 있지만 예전에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맞은편 아파트 테라스의 등(燈)을 바라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상 공개 구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